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7 1981년9월2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September 2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블루제이 최동원 스카웃

양키즈, 다저스 물리치고

메이저리그 직접진출, 「최」측 계약내용에 불만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블루제이팀은 한국야구계의 호프 최동원 선수의 스카웃 계약에 성공, 내년시즌(82년도)부터 블루제이스 라인엎에 등장하게 됐다. 블루제이스 엘리옷·웨일 인사부장은 22일 하오4시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최동원 선수와 수년간의 계약을 체결, 82년 시즌부터 최선수가 블루제이스 마운드에 서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웨일 부장은 기자회견전 본보기자를 스터디엄으로 초청해 최동원 선수와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뉴스룸에서 본보기자와 같이 약30여명의 스포츠기자와 TV카메라 앞에서 발표했다.

◇블루제이 스카웃된 최동원 투수의 투구폼. 볼을던진 후에도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웨일부장의 발표문 내용은 다음과같다.

"우리팀 스카우터인 웨인·물간은 지난8월 에드몬턴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한국팀에서 놀라운 투수하나를 발견했다. 그 자리에서 팀본부와 연락끝에 스카웃교섭이 오갔으나, 결정된 사실은 없었다.

그후 최동원선수를 노리고 뉴욕·양키스, LA·다저스등이 접촉하려는 사실을 발견, 계약을 서둘렀다.

지난10일 스카우터 웨인·물간, 스카웃부장 봅·컷, 그리고 나와함께 최선수를 직접 만나러 갔다.

그의 게임을 직접 보았으나 듣던대로 훌륭한 선수이다.

「최」는 한국에서는 야구영웅같은 존재다.

한국 실업야구전기리그에서「최」는 소속팀 롯데가 치른 18게임중 13승1패를 올렸고, 평균실점은 2·62이다.

우리는 최선수를 바로메이저리그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최선수에게는 가장 어필이 큰것같았다.

계약내용은 다년간 으로만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

한가지 문제점은 최선수의 병역문제이나 우리는한국정부에서 운동선수에게 특혜를주는 법안이 곧 통과될것으로 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와 캐나다정부에 협조를 부탁했다.

최선수의 개인 프로필등은 옆에있는<한국일보—토론토>의 유승민 기자에게 물어보라"

질문 : 아마추어에서 직접 메이저리그 선수로 뽑았다는데 모험이 아닌가?

웨인부장 : 최선수의 능력으로볼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 유기자는 병역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

유승민 : 몇몇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한국의 성년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며칠전 본사의 양부장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운동선수에게도 특혜를 주는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안다. 최선수가 블루제이 유니폼을 입는것을 기대한다.

질문 : 최선수가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미주프로야구에 진출하는가?

웨인 : 메이저리그 선수로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

유 : 한국선수로 역시 투수인 박철순 선수가 밀워키·브르워즈의 마이너리그 A·A급투수로 알파소에서 활약중이다. 투수성적은 3승3패로 평균 5·74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질문 : 블루제이가 어떻게 양키스나 다저스를 물리치고 계약에 성공했나?

웨인 : 메이저리그 선수로 직접 뛸수 있다는것이 최선수에게 매력을 준것같다.

질문 : 「최」가 캐나다의 「웨인·그레츠키」가 아마추어 선수였을때만큼 인기가 있나?

유 : 그렇다. 한국에는 축구와 야구가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다. 축구에는몇몇선수가 세계각 프로팀에서 뛰고있고, 차범근선수는 독일프로팀에서 1급선수로 뛰고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본보기자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웨인부장은 "정식으로 사과한다. 그동안여러가지 이유로 모든것을비밀에 붙였었다"면서 최선수의 병역문제는 9월 28일쯤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수가 소속된 롯데팀과의 문제는 최선수가 걱정없다고 말했다면서 일본프로팀인 롯데에서 스카웃제안이 오더라도 토론토를 택하겠다고「최」군이 말했다고 했다.

웨인부장은 이번 한국에 갔을때 지난7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했던 고려대1년 선동열투수의 게임도 보았으나아직 프로메이저리그급 선수로는 너무어리고, 또 재학중이라 다음기회에 고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본사「일간스포츠」의 양삼부장은 22일밤 통화에서"눈치를 채고 최동원측과 접촉했으나 최의 부친은 블루제이스 측과는 다른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선수측은 4년간 계약에 6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블루제이스측이 3만달러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아무소리도없이 가버렸다"고 최선수의 부친은 불쾌한투로말했다고 양부장은 말했다.

본<한국일보—토론토>는 그동안 최동원선수의 스카웃 내용을 계속추적, 블루제이스와 접촉했었다.

블루제이스측은 본보기자에게 계약서의 앞뒷면만 보여주고 내용은 밝힐수없다고 말했다.

◇엘리옷·웨일 인사부장과 같이 기자회견 하는 본보 유승민기자

필로프

트루도수상 수행 취재

본보 이태은 오타와지국장'

◇이태은지국장

본<한국일보—토론토>의 이태은 오타와 지국장(41)은 한국계 기자로는 유일하게 캐나다 수상으로는 최초인 트루도수상의 한국방문을 수행 취재한다.

이지국장은 25일 하오5시 오타와에서 수상전용기 보잉707 4발 젯트기에 탑승한다.

수상을 수행하는 기자는 총 32명이다.

이지국장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학력 : 59년3월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입학
67년 3월 동대학 석사

경력 : 59년~63년 전남대학「대학신문」기자
65년 R.O.T.C 중위 제대
70년~74년 대한항공 영업부장
77년~현재 오타와 이태은태권도 학교장
78년~현재 캐나다태권도협회장 사무총장

(관련기사 2면)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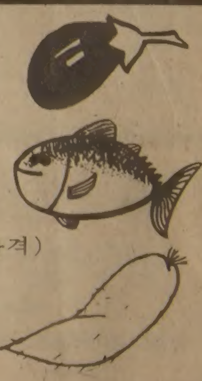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서울식품 "BIG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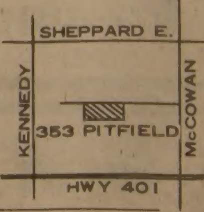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추, 무, 풋고추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젓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젓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한국일보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W

트루도 예정대로 방한

새헌법 판결 불구, 서울서 TV 위성중계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트루도의 방한일정이 확정됐다.

트루도 수상은 27일에있을 캐나다 신헌법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 한국방문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새헌법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해 트루도 수상은 서울서 코멘트하며, 이는 인공위성을 통해 캐나다에 TV중계된다.

이때문에 그의 방한은 더욱 캐나다 전국에 크로즈업된다.

트루도 수상은 전두환 대통령및 남덕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캔두원자로와 통신시설의 한국에 대한 판매등 중요 무역문제등을 토의하고, 유엔및 남북한대화에서의 한국지지등 외교관계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타와에서 밝혀진 중요의제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U.N총회에서 다루어질 남·북한문제에 있어서 남한측 의견 지지.
②캔두원자로 판매
③장거리전화등 통신시설 기재판매
④기타 한·가 양국의 외교및 무역증진.

트루도 수상 일행은 25일 하오5시 수상 전용기인 보잉707기로 오타와를 출발, 알라스카를 거쳐 27일 상오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한국에서의 트루도 수상의 방한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 상오11: 김포공항 착
간단한 환영식후 신라호텔(202호실)에 투숙
하오6시: 주한 캐나다실업인과 회합
28일 상오10시: 국립묘지 참배
10시30: 중앙청에서 트루도 환영식
10시50: 트루도 수상과 남덕우 총리회담
11시30: 청와대로 전대통령 예방, 회담
12시30: 전대통령 주최 오찬회
하오4시: 트루도·남덕우 2차회담
5시30: 트루도 기자회견
7시30: 남총리 주최 만찬회
29일 상오9시: 부산 UN군묘지 참배
12시15: 경북 월성군 캔두원자로 발전소 방문
•하오1시45: 경주 방문
6시: 「트」수상 주최 만찬회
8시30: 호주 멜보른 향해 김포공항 출발

남북문제등도 중요의제

(오타와21일=연합)27~29일로 계획된 한·가정상회담중에 남북문제, 무역과 투자문제가 주요의제로 될 것이다.

21일 캐나다정부 당국자들은 트루도수상과 전대통령의 정상회담중에 「동·서긴장」,「남북문제」등 광범위한 국제문제와 아울러전반적인 한반도문제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들은 또 트루도는 지난 7월 남북문제(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관계)와 관련된 영,미,불,독간의 오타와정상회담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간단히 한국고위층들에게 설명하고,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도는 특히 오는10월 멕시코·캔쿤에서 열리는남북문제에 관한 21개국 정상회담에 관련된 문제에대해 한국 고위층과 의견교환을 갖고 싶어한다고 캐나다 관리들은 말했다.

남북대화는 트루도 수상의 중요관심사로,트루도는 오타와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상품가격의 앙등으로심한 타격을 받고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은 그들의 부(富)의 상당한부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장관 유엔연설
남북대화 재개희망

(유엔21일=연합)알렉산더·헤이그 미 국무 장관은 남북한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측의 의견을 강력히 뒷받침 했다.

36차 유엔총회에서 헤이그 국무장관은"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재개를위하여 노력하는것은 유엔헌장의 목적인 평화유지를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세계평화를 증진하려는 유엔의 임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성장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헤이그는 미국은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 경제적원조등을 중단할 것이라고분명히 언급했다.

헤이그장관은 덧붙여 미국은 국제적 분쟁을 저지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社說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 트루도의 방한에 즈음하여

트루도 수상의 방한 결정을 계기로 캐네디안들과 이곳 한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한·가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문제들과 체결될 협정이 양국의 현실과 장래에 밝은 결과를 가져 오기를 기원하며,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곳 한인계의 현안문제인 한인지위 향상, 이민의 문 확장등에 만족할만한 변화가 있기를기대하는 바이다.

트루도 수상이 애초 계획했던 여러 나라의 방문을 모두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호주에 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이 앞서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캐나다의 수상으로는 첫 방한에 앞서 수일전 이례적으로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저로 이규현 대사를 방문, 요담을 나누는 한편 한국음식을 맛보면서 사전준비까지 마쳤다.

그의 방한이 지니는 의의의 중차대(重且大) 함에 비추어 본〈한국일보—토론토〉의 이태은 오타와 지국장이 수행기자로 수상을 동행하는 것은 한민족의 체면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가앙등, 모기지 이자율 인상등 시기적으로 뒤숭숭한 이때, 더구나 그가 내놓은 개헌안이 내주초(9월28일) 최고재판소에 의해 최종 판결을 보게 될중요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강행함은 더욱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일찌기 캐나다는 6.25동란때, UN 깃발 아래 용약 참전해준 16개국 민주우방의 하나이다.

이 나라는 한국이민의 길을 터주기도 했으며, 양국간 무역거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가고 있어 두 나라의 우의는 매우 돈독하다. 또한 수년전 한국은 캔두원자로를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무시 못할 거래국인 것이다.

이번 트루도 수상의 방한 목적은 ①UN 총회에 있어 남·북한문제에 남한 의견을 지지할 것과, ②캔두원자로및 통신기재 판매및 ③양국간의 외교·무역 증진문제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정을 위한 것으로 외교관측통은 보고 있다.

이를 자세히 풀이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견해의 교환, 동서긴장·선진및 후진국간의 관계인 남북문제등 세계정세에 관한 광범위한 국제문제 토의, 무역·투자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나,그 중에서도 트루도를 한국으로 날아가게 한 대표적 촉진제는 캔두원자로 판매건으로 지적되겠다.

경기불황의 돌파구를 트는 한 작업으로서도 그로서는 그 길을 택했을 것이며, 이같은 고무적 장거(壯擧)로 원자로의 대한판매를성사시킴으로써 정치적 인기를 회복하려는 의도도 가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한국측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아쉬워서 달려온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 1대1의 입장에서 유리한 카드를 당당히 협상테이블에 내놓아,조금이라도 더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캐너더뉴스〉3월28일자 사설 참조)

첫째로, 실질적으로 거의 폐쇄되다시피한 한국이민의 문을 넓게 열게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문제이다. 현재 이땅의 한인사회는 겨우 4만여, 숫적으로 가장 빈약한 소수 이민집단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민족적 차원에서나 커뮤니티로서의 대외적 말발이 서지 않는다.

한인의 수가 적어도 10만은 돼야 세금도 많이 나오고, 각분야에서 저력있게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이 나라 사회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전대통령 으로서는 국내의 남아도는 막대한 인적자원을 해외로 진출시킴으로써 국력의 세계적 신장의 계거로 삼는 집단 고용이민의 길을 트기에 전력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로 캐나다의 한인집단 지위향상을 위한 캐나다정부측의 제반배려, 교육·문화시설의 자금영달등의 시책을 요청한다.

세째로 불법체류자 구제로 생기있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밖에도 양국간 문화교류, 상호비자면제협정등을 비롯하여 한인사회 번영과 권익옹호,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배려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니, 이같은 호기를 계기로 이를 실현화시키기에 최대한의 작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열쇠목걸이 아동문제 심각

미전역에 4백만, 사고율높아 사회문제화

3시~6시 부모올때까지 애들만이 집지켜
맞벌이 부부와 이혼율높아 계속증가추세

마약중독·무질서한 성관계등 부작용 파생
아동보호단체등 아동보호계획 마련 절실

학교방과후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채 빈집에 들어서는 소위 『열쇠목걸이 어린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가고 있다.

이 열쇠목걸이 어린이는 부모들이 직장에 가면서 학교에 태워다 주거나 스쿨버스에 태워주고 학교가 끝나면 부모들이 목에 걸어준 열쇠로 문을 스스로 따고 빈집에 들어서는 어린이들.

13세미만의 국민학교아동으로서 이렇게 빈집에 들어서는 아동들이 미전국에는 줄잡아 4백만이 있는데 이숫자가 날로 늘어갈뿐아니라 이들이 혼자 집을 지키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것이다.

미국교육계,아동심리학계는 이런 아동들의 보호·관리를 위해 지금 대책을 강구중.

현재 『열쇠어린이』 문제에 대한 저술을 위해 전국적인 자료를 모으고 있는 볼티모어·로욜라대학의 아이니트·통교수는 전국 약 1천여명의 『열쇠목걸이 어린이』를 만났다.

캘리포녀주 오클랜드에 사는 8살난 대니·리차즈라는 어린이는 하루에 3시간씩을 혼자집에 있는다고 말했다.

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머니가 단단히 묶어준 목걸이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텅빈 집을 들어서는 때가 하오 3시쯤.

어머니는 6시를 지나야 들어오기 때문에 3시쯤 혼자있는다.

대니는 차가운 바람이 싱싱불며 5시만 되면 벌써 어두워지는 겨울철이 가장 싫은 때라고 말했다.

창문이 덜거덕 거릴때마다 금방 불안해지며 해가 어둡기 시작하면 줄곧 시계만 쳐다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린다는것이다.

클리블란트 교외에 사는 윌리·제임스라는 7세소년은 이혼한 어머니와 채 넓다란 주택에서 사는데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올때까지 목욕탕에 들어가 내내 기도만 한다고 말했다.

피닉스에 있는 보브(13)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버지가 올때까지 집안 경비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하나 정도는 집을만큼 힘이 세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아무도 없는 텅빈집에 들어서면 TV와 전화기를 생명선으로 잡는다고 뉴욕의 아동심리학자인 리차드·윌킨스 박사는 말했다.

일터에 나가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쉴새없이 전화를 걸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며 TV어린이 프로그램도 혼자있는 어린이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한다는것.

목걸이 열쇠어린이가 늘어가는 이유는 미국사회의 변화의 한 양상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맞벌이부부가 이혼율까지 높아 어린이가 가정에서 유지되고 있는것이다.

◇등교첫날—9월이 되어 처음으로 학교에 나간 꼬마들이 교실 복도에 서있다. 이중 몇명은 열쇠목걸이를 목에 건 어린이인지도 모른다.〈UPI〉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중 일하는 어머니를 가진 학생은 미전국에 약1천4백만쯤 있다. 이중 3분의 1정도는 하루에 적어도 두세시간은 혼자 집을 봐야하는 처지.

메릴랜드주 클렌·버니에 있는 한 국민학교의 6학년학생을 조사한 결과 반원28명중 25~6명이 모두 혼자집을 봐야하는 그런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디아나 폴리스의 에드가·에반스 국민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의 80%가 어머니없는 빈집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이런 빈집지키는 어린이의 증가로 미국아동들의 심리도 크게 변해가는것 같다고 말했다.

센트·루이스 대학의 심리학교수 존·융커는 아동들이 어머니가 없는 빈집에 들어서면 우선 마음이 허전해지며 이런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본능이 결국은 마약중독, 알콜중독, 시끄러운 음악애호, 무질서한 성관계등의 경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융커교수가 인터뷰한 한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빈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 전화가 오면 무조건 『어머니가 지금 막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고 증언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혼자있지 않는것처럼 가장하기위해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하기시작하여 인격형성에 나쁜영향을 주기도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어릴때부터 혼자집보는 것이 꼭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자립심을 길러주는 긍정적효과도 있다는것.

야구방망이를 갖고 집을 경비하는것등은 열쇠목걸이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전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결국 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웃끼리 열쇠목걸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지역조직을 만드는 운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캘리포녀주지사의 교육담당 보좌관 잭·데일리는 혼자집보는 아동들이 성범죄, 주거침입, 강도등 각종범죄의 희생물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방과후 수업계획을 수정,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녀 버뱅크시의 한 동리는 이웃끼리 아동보호단체를 결성하고 어머니들이 차례로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 아동보호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직장별로 어린이 보호실을 설치하는 것도 생겼다.

〈새로 나온 책〉

"사이비종교란?"

— 교역자협의회 펴냄

토론토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홍순관)는 합작논설집「사이비종교란?」(제1권)을 출판했다.

국판 82면으로 9월 내놓은 이 책의 내용은 작년동협회 세미나에서 발표된것으로,북미주에 존재하는약 2천5백종의 사이비종교단체중 통일교,구원파, 기도원의 3종파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신흥종파의 사이비성도 파헤치고있다.

논제와 필자는 아래와같다.

○구원론 (안상엽)
○신흥종파의 사이비성 (안상엽)
○통일교 비판 (최상봉)
○통일교회에 대하여 기성교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상철)
○구원파에 대한 비판 (김용출)
○구원파에 대한 교리적비판(안병한)
○수도원주의(홍순관)
○기도원의 문제점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 (차주성)
○사이비종교와 온사론 (김용진)

동저서에 따르면 81년8월1일 현재 캐나다한인사회에 현존하는 사이비종교단체는 아래 7개단체이다.

(1)국산 이단종파
통일교(교주 문선명)
평신도선교회(구원파)—교주 권신찬
동방교—교주 노광공
(2)외국산 이단종파
여호와의 증인—교주 럿셀
몰몬교—교주 조셉·스미스
안식교—교주 와이트부인
크리스찬 싸이언스—교주 에디부인

사이비종교연구위원회위원은 다음 9명의 교역자이다.

김용진·김용출·안병한·안상엽·이상철·이필주·차주성·최상봉·홍순관

애뉴얼골프 성료
골프협회 주최

토론토한인골프협회가주최한 81년도 애뉴얼 골프시합이 19일(토) 65명 (남60 여5)의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캐슬모어·골프장에서 열렸다.

지난 9월 6,7일 수퍼10골프대회에 이에 공식오픈·토너먼트 경기로서는 올해 마지막 시합인 이 경기는 까다로운 골프규칙을적용하여 권위가있다.

그로스와 네트부문및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
◇그로스
1등: 김경철 80
2등: 백광수 81
3등: 최상수 81
◇네트(핸디캡 제외)
A조
1등: 천용기 64
2등: 장인수 69
3등: 이광민 71
B조
1등: 신성훈 67
2등: 송재련 69
3등: 이돈형 71
◇최강타
이상봉 265야드
◇니어리스트·홀
곽창수 7피이트
◇스트레이트 볼
김진기 215야드

〈여자부〉
◇그로스
1등: Mrs. 원장호
2등: Mrs. 김성태
3등: Mrs. 이창복

김은국씨 제4의 작품 집필중

「순교자」의 저자 서울대 초빙교수로 간

▲김은국씨

한국 동란에 관한 소설「순교자」를 1964년에 발표, 세계에 알려진 작가 김은국씨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초빙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6·25발발 당시 서울대 상경학부 신입생이었던 김은국씨는 육군 연락장교로 복무했었고 4년후인 1955년에 도미, 미들베리 칼리지, 존 합킨스 대학을 거쳐 아이오와 대학에서 동양문학과 창작을 전공했다. 1964년 석사학위를 위해 썼던 「순교자」는 청년장교로서 종군 경험을 토대로 한 실존주의적 작품이었는데 베스트 셀러가 되어 김씨는 32세에 유명해졌다.

그후 매서츄세츠 대학 시라큐스대학, 샌디아고 대학에서 77년까지 교편을 잡은후 「프리랜서」로 집필해왔다.

그의 두번째 작품 「무죄한자」(THE INNOCENT)와 세째 작품 「잃어버린 이름」(THE LOST NAME)각각 1968년과 70년에 출판됐으며 긴 침묵끝에 현재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제4의 작품을 쓰고 있다. 이 작품은 해방후와 6·25동란중 한 한국소년이 겪는 정신적 방랑을 그린것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미국 시민으로서 앰허스트(매서츄세츠주)에서 차회학자인 미국 부인과 두 자녀를둔 김씨는 모국에 와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을 발전하는 길의 하나라고 말하고 한국인의 주체성과 자기 존중을 강조한다.

한국의 급속한 현대화는 너무나 눈부셔서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말하면서 이나라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낄수 있으나 바른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82년 모델 첫선—크라이슬러 르바론 82년형은 주껑을 열 수 있는 컨버티블 이다. 아래는 82년형 포드 에스코트.〈AP〉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00PM~2: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416) 222-9480

北海가르는 노다지탐색

英, 2차대전중 水葬된 蘇금괴인양작업활발

해저보물발굴사상 최대규모가 될 북해의 7천5백파운드에이르는 금괴인양작업이 17일 일부 성공했다.

지난 1년간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탐험을 진행해오던 영국의 해저수색반들은 이날 40년간 바닷물에 담겨있으면서도 찬란한 빛을 잃지않고 있던 금괴 1백96파운드를 인양해내고 나머지를 속히 꺼내기위해 철야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금괴는 2차대전때 영국해군순양함에딘바라호에 실려 미국으로 가던 소련금괴.

나치세력에 한창 유럽전역을 뒤덮고 있을 무렵인 1942년 3월 영국순양함 에딘바라호는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기위한 대금 6백만달러어치의 금괴를 수송하는 책임을 맡고 북해를 빠져나오다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던것인데 침몰선이 해저 8백피트에 빠져 있을뿐 아니라 기후조건이 나빠 지금까지 인양업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소련은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해도에 에딘바라호의 침몰지점을 점찍어 놓고 번쩍거리는 금괴를 머리속에 그리고 있었다.

에딘바라호가 침몰된곳은 놀웨이–소련국경에서 정확히 1백50마일의 베렌트해.

침몰장소가 공해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누구든지 먼저 꺼내는 자가 임자였던 것이다.

이번 해저탐사를 본격화시킨것은 영국·놀웨이의 북해유전개발덕택이었다. 해저 수백피트에 깔려있는 석유를 발굴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이 40년간 바다에 묻혀 있던 금괴를 꺼내는 작업에 동원됐던것.

인양작업은 영국 제솝해양탐험회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놀웨이탐험선 스떼파니트롱호와 해저석유탐사에 쓰는 고성능 잠수선을 이용했다.

잠수선은 2명이 타고 1개월간 해저작업을 벌일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TV스크린을 통해 잠수반들의 행동을 낱낱이 지켜보며 지시하는 수상선통제소와 연결되어 있다.

잠수반은 지난달 드디어 에딘바라호를 찾아내고 90상자의 금괴가 쌓여있는 에딘바라호 금고실에 접근했다. 그러나 금고문이 녹슨채 딱 아 붙어버려 그동안 금고절단작업을 벌여 오다가 16일 첫금괴를 끄집어 낸것이다.

현장에 나가있는 소식통들은 이날 끄집어 낸 금괴는 제정 러시아 황실상징인 독수리머리 2개가 찍혀 있었으며 금괴를 싼 나무상자는 없어지고 금괴가 금고바닥에 노출된채 있었다고 말했다.

에딘바라호는 당시 U보트의 공격을 받았을때 선원 약 30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7백50명은 구조됐다.

영국은 그동안 이 에딘바라호를 30명의 전사자 이름과 함께 「영국해군의 무덤」으로 선포하고 에딘바라호가 침몰된 3월30일을 기념해오기도 했다. 인양된 금괴는 제솝탐험사가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영국과 소련이 1대2의 비율로 가르기로 계약돼있다.

1942년 당시 금괴는 법적으로 미국소유였으나 미국은 금괴보험사로 부터 해당하는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이번 발굴에는 아무 연관이 없게 됐다.

해저탐색대들은 늦가을이 되기전에 모든 금괴를 다 끄집어 내기를 바라고 있다.

10월에 들어서면 벌써 베렌트해는 산더미같은 파도가 일며 바다가 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7천5백파운드를 다 인양하면 현싯가로 따져 그가치는 약9천만달러에 이른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기쁜 소리 444-4011

모태에서 묘지까지

안 상 엽(선교교회 담임목사)

인간이란 모태에서 묘지까지(Womb to Tomb)의 존재이다. 그 후는 영의 세계요, 영원성에 속한다.

많은 것들이 그렇다 하지만 모태에서 무덤까지의 인생과정에 있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곧 "교육"인 것이다.

이 근자에 신문상에 나타나는 글중에 구원받은 자(기독교인을 말하는지 모르나)들은 마치 인간이 아닌 존재나 혹은 인간상태가 완전히 변질되는 것같이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나 죄론과는 먼 거리의 옛 신화나 요술성같은 것을 전하는 느낌을 준다.

"교육"도 그렇거니와 "종교"도 인간이 인간되게 함을 목적에 둔다. 즉 불완전한(imperfect) 인간, 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3:10)는 진리에 근거를 둠으로 교육이 필요하며, 나아가 "최고지식의 가르침" 인 종교(Religio)가 요청되는 것이다.

즉 부족과 결핍과 죄인 이전의 인간성(Image of God)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교육의 근본목적이요, 또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종교가 될 것이다.

바알트의 말과 같이 인간은 모태에서 묘지까지 "언제나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이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육시키고 발전시켜서 전인간(total personality)이 되게 하는 노력이 교육이요, 또한 나아가서는 종교의 과제인 것이다.

물건이나 미물이나 동물은 실제로 교육이나 종교가 없고, 다만 훈련이 있을 뿐이다.

물론 교육은 사회를 위한 유용한 인물양성의 목적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수많은 교육이 학교라는 형태 속에서 교육의 근본과 넓은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전문가 혹은 기계화된 인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쟁이"를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교육부재" 의 경향이 있음은 사실이다.

인간성을 잊어버린 가정이나 국가와 사회일수록 교육의 참된 목적과 관계성(relevance)을 잃어버리고, 훈련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각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인간"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육성시키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은 역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모든 교육의 근원이 된다. 즉 철학(philosophy=지식) 이전에 종교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명문대학교에는 채플(Chapel)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짧은 글에서 크고 넓은 "교육"을 말함이란 꿈같은 소리다. 그러나 모태에서 묘지까지의 인간이 무엇이며, 그 인생의 필요가 교육과 종교라는 재목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서중에 "교육"이라는 말은 무한이 깊은 뜻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훈," "방향제시," 혹은 "바른 길을 가르침"(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잠22:6, 삼상12:23) 등의 뜻이 있고, 교육함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직으로 이웃과 사회와의 선하고 복된 관계를 갖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성서의 첫부분이 율법(Torah)인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역사중에서 가르침이요, 올바른 제사와 함께 그 내용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선민으로서 축복을 받았고, 구원받아 완전하고 의인된 인간이라면 이같은 종교와 교육이 불필요할 것이다. 복음서중에도 "천국선포"(케리구마)와 함께 "가르침"(디다케)이 있고, 예수의 생애중 약 3분지2가 "가르침"의 내용인 것이다. 인간은 쉼없이 배우면서 올바른 종교를 가져야 할 존재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를 가진 자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⑥⑤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흥 옮김

그중에 미키는사슴을 잡을수는 없지만 토끼나 뇌조를 잡을수있는아주작은 구경 22총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또 미키는 이른겨울철에 한스에게서 받은 실탄이 조금남아 있었읍니다.

우리들은 이틀을 걸은후에야 우리가 살던곳이 안보이게 되었는데 그 거리는 힘센남자가 하루면 걸을수있는 거리였지요. 우리는 모두 지쳐서 몇 발작마다 쉬어야 했고, 여인들과 노인들은 눈위에 바짝 마른몸을 눕히고 쉬었지만 비어있는 뱃속의 고통을참느라고 애를 썼읍니다.

나흘째 되던날 우리는산림이 시작되는곳 까지 오니까 북이랄지, 늑대가 반은 먹다남긴 사슴을 발견했지요. 늑대보다도 더 배가 고팠던 우리에게는 그것도 감지덕지 했지요. 남은뼈를 모두 쪼개갖고왔던 양철냄비에다가 국을끓여 먹고, 늑대인 아모우가남겨놓은 사슴을 다먹고 뼈와 심줄만 남았을때는 우리가 거기서 이틀을 지낸뒤였읍니다.

우리는 약간 기운들이났고, 계속해서 나무가 뜨문뜨문 자라는 수림지대를삼일동안 걷고나니 더이상발을떼수 없게 되었지요. 우리가 멈춘 곳에서는 그 흔한 뇌조도 구경할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나 땔나무는얼마든지 구할수 있어서 몸만은 덥힐수가 있었지요.

눈을녹여서 더운물만 잔득 마셔대니 창자속은 너무 쓰라리고, 아픔만 더할뿐이었지요.

이틀째 되는날 우리는또 다시 행운이 왔는데 오텍이 미키한테 총을빌려 혼자서 사냥을 나갔읍니다.

미키는 지쳐버려 눈이깊이쌓인 숲을 걸을수가 없었죠. 갑자기 오텍은 토끼 한마리를 발견 했읍니다.

숲언저리 에서부터 걸어오는 오텍을 의식하고 있었던 그 토끼를 무릎자세로 조준하여 간신히 잡았읍니다.

오텍이 토끼를 잡아갖고 캠프로 돌아오자 나는 여인들이 먹어야할 아유가많다고생각하고여인들에게줄려고 했지요. 오텍의 부인은 어린애 에게 물려줄 젖을 먹이지 못해서 바짝말라 붙어있었고, 또 뱃속에는 임신한 또다른애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부인은 그것을 잡아채어가지고 엘라이투트나와 알주트에게 주고싶었 겠지요. 그리고 다른부인들도그걸가지고 싸우고 싶었을겁니다. 그러나 그런일은 없었어요. 여인들은 이 흉년에 그래도 제일적게 피해를본 우리세사람의 남자들에게 토끼를 먹여야 된다고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이 토끼를 먹고 무역하는 사람을 찾아가 양식을 얻어와서 이제 더이상 걸을수없는 나머지 사람을 구해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토끼를 굽는 냄새가 나머지 사람들을괴롭히지 않도록 토끼를 가지고 숲속깊숙이 들어갔읍니다

날로 고기를 먹으면 굶주린 창자가 뒤틀어져 버릴것같기 때문에 그것을요리를 해야했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꼭 미쳐버릴것 같았지요.

나는 내몫이오자 캠프에서 다죽어 늘어져있는 아이들을 생각지 않을려고단숨에 목구멍으로 넘겨버렸답니다. 그러자 위에서는 찢는듯한 통증이 왔지만우리셋은 그길로 무역자를찾으러 얼어붙은 작은강을건너갔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걸었지만 이틀후에야 어떤 호숫가에 당도했고, 거기서낯설은 백인이 살고있는 나무로지은 이글루를 보았지요. 그때 나는이미 리틀힐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염려는 까맣게 잊고있을때였지요. 그순간 몸에서 나오는힘이 필요가 없었고오직 정신력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내 다리는 기능을잃어버렸고 나는 눈위로 넘어졌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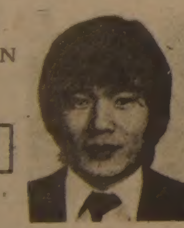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이제살았다는 안도감으로 아무것도걱정되는것이 없었읍니다.

키가작은 상인이 이글루에서 나와 눈위에 들어누워있는 우리를 내려다 보았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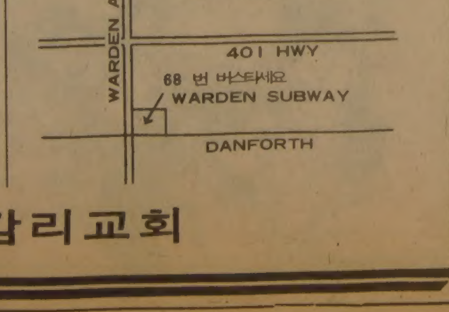
우리들은 자신들이 기진맥진해있고 또 그의말을통할수 없는것이 부끄러워져서 그 사람이 우리를 내려다 보았을때 당황해서 웃음으로 얼버무렸지요.

우리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기만 했답니다.

(계속)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심령 대 부흥회
할렐루야!

우리 각 교회와 교민성도 여러분들께 영육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본교회에서는 추기 심령 대 부흥회를 하오니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 강 달 희 목사
일 시 : 9월 25일(금) 저녁7시30분
26일(토) 새벽5시30분
낮11시
저녁7시30분
27일(주) 새벽5시30분
낮 1시30분
저녁7시30분
28일(월) 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장 소 : 웨슬레 감리교회(2385 WArden Ave. Scaborough Ont.)
담임목사 : 여 용 순
전 화 : 444-8343

웨슬레감리교회

특별집회
강 사 : 문 동 환박사
시 간 : 1981년9월27일 (4시30분)
장 소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INE AVE.)
임마누엘
연합교회
남신우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8, MRS. THOMAIDIS

정원사 HELPER구함 : 연령제한 무
풀타임 또는 파타임
☎ : 653-8173 MR. 강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업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돈밀과 에그린톤지역
☎ : 425-6068

도나스 샾에서 일하실 풀타임
키친 헬퍼 구함(여자분에 한함).
☎ : 481-3677 미세스 박

경험있는 헬퍼구함 :
일요일만 근무
☎ : 690-4512 75 EASTDALE AVE.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원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풀타임 카운터 헬퍼구함
EATON CENTER내:
☎ : 979-9283

공장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분 구함 :
전기 어셈블리, 전기 택크니션, 플라스틱 몰딩기계
어프레이터 직접와서 문의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Corner & Browns Line)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포장 일하실 여자구함 :
시간당 $3.50, WESTEND LOCATION
(키플링×HORNOR)
직접신청 또는 252-1258 전화요망
MR. HUGHES

매매및 양도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세 탁 소 급 매
☎ : 653-6336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밤11시 이후 호텔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오후2시 이후 연락바람
☎ : 425-1836 MR. 정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절 호 의 찬 스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십니까. 카페테리아식 고급 레스토랑으로 낭만적 분위기이며 좋은 비지네스 입니다.
미시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매상 4천달러이며 매상은 급상중, 년간 8만달러 수입. 주 5½DAY OPEN
☎ : 270-0679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FISH & CHIP매매
적은 자본으로 사업체를 찾고 계신분에게 적격, 모든 경비공제후 연 순수익 30,000달러이상, 주49시간 영업 일주에 필요한 인원은 1½사람,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633-6281 2865 JANE ST.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건물및 비지네스 매매 : 주매상 6500달러이상
스토아 매매 : 4200달러이상
☎ : 535-7200 MR. 김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융게지 : 13½% (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7-743-3152 MR. 유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버라이어티 급매 : 가게 처음하시는 분에게 호 조건임
ASKING : $10,000+스탁(월개지가능)
2727 LAKESHORE BLVD. W.

집·방세·하숙

아파트 서브렛 : 렌트 $259
입주 10월1일 LAKESHORE와 MIMICO
☎ : 252-8823

집세 놓습니다. 교통편리 : 던다스(영 & 처치)
1 &2 베드룸 With Patio deck, 즉시 입주가능,
냉장고, 스토브 설치되 있음. ☎ : 444-1322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매매 부동산

복덕방ROYAL TRUST CO. 로얄 · 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여권 분실

여권분실공고 :
성명 : 박수영, 1981년9월 본인의 여권을 분실하였기에 공고 함. ☎ : 1-416-899-1522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 · 김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간 판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온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구 혼

28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여성원함 관광방문녀도 무방함
MR. 강 일 영
1015 ROOSEVELT RD. #303 MISSI. ONT. L5G3Y7

재색과 학력 겸비한 29세 미혼여성 중매
유럽에서 고교와 대학졸업, 현재 간호학과 졸업반
(이민자녀)
30~45세 사이의 학력있는 분의 연락바람
연락처 : T. CHOI 1355 SO. HOPE ST. #311
L. A., CA. 90015 U. S. A.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0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기 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차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쏘메쎄리

한방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나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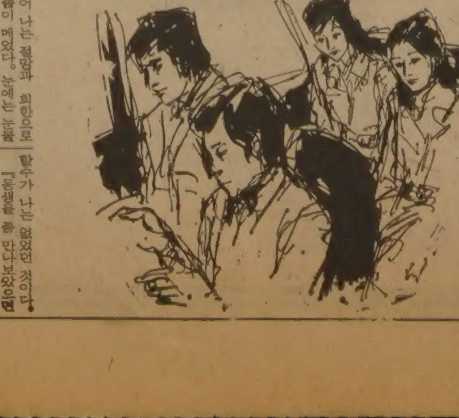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돌개바람 불다 ⑦

趙善熙 作
禹慶熙 畵

몸좋이 워生 <206>



그가 어떻게 세호의 소식을 알고 있는가도 나는 엽핏 궁금했지만 그런 것을 따져 볼만한 여유가 내게는 없었다. 무슨 말이든 더 결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그에게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나는 전전긍긍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치 끈끈이풀에 붙잡힌 곤충과 같았다. 아무리 힘껏 날개를 쳐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 세호의 소식은 노영지에게서 전해 들었을수도 있겠다, 하고 내가 퍼뜩 생각해 냈을 때 그가 다시 말했다.

『왔으니 세호나 만나보고…차비 있어?』

그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부스럭거리기까지 했다. 그의 눈은 냉담하게 고정되었으며, 위압의 빛까지 띠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가 싶어 나는 절망과 회한으로 가슴이 메었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해져서 그렇잖아도 낯선 거리가 사막처럼 막막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하나의 구원처럼 윤나미가 나를 부른 것이다. 「언니, 빨리 와요」 택시 정류장 앞에서 그녀는 내게 손짓까지 해보였다. 나는 그를 등지고 윤나미를 향해 뛰었다. 뛰면서 돌아보았더니 그는 난패의 표정을 짓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대의 택시에 다섯 사람이 나누어 탔다. 앞택시에는 나와 윤나미 그리고 그가 탔고, 뒤 택시에 유장훈 감독과 권여사가 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윤나미가 운전석 옆에 앉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한선생님, 미스 안 언니랑 어디로 빼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야?』

『뒤에 처져 어물어물 하시니까 갈뚝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설마 그러실까 했더니, 아니래요. 여자하나만 생겼다 하면 언니 실행. 빠는데 도가 트셨다나요? 조심해요, 언니』

윤나미가 고른 치열(齒列)을 내보이며 나를 향해 웃었고, 그가 앞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 친구야 말로 바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구. 조심해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유모양』

『그럼 언니가 해명을 해주셔야겠는데? 거기에서 왜 우물쭈물하고 계셨는지. 작가 선생님께서 둘이 어디로 빠지고 속사이신 거 아네요?』

윤나미가 나를 향해 말했고, 나는 무슨 해명을 들려주어야 좋을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그가 끼어들었다.

『그건 말야. 미스 안 동생이 부산에 있는데…』

그는 그의 말을 재빨리 잘랐다. 그가 나를 쫓아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털어 놓게 할수가 나는 없었던 것이다.

『동생을 좀 만나보았으면 싶어 일행에서 빠져도 좋은가 의논드렸던 거야』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는 다시 앞으로 돌아앉았다.

『여동생이요?』

『남동생』

윤나미와 나는 앞 자리의 그를 버려둔 채 세호에 관해서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을 한다는 것, 그룹 사운드 <도롱뇽>의 리더라는 것, 어딘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는 것 따위를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고, 그녀는 『거기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팝뮤직을 하는 미지의 남자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 주었다. 세호에 대한 윤나미의 호기심은 괜스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가령 일행이 모두 세호와 일터로 몰려가게 되는 경우, 아니면 그 혼자만이라도 세호를 만나보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었던 것이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한사람擔稅 26만3천8백원

政府、내년豫算案확정 총규모 9兆5,956億원

成長 8%… 都賣物價 12%억제
內國稅 23% 交付金 38%증가
防衛費 22.2%증액 GNP6%上廻
經濟개발17.8、社會개발은 30%늘려

정부는 19일 금년보다 22.2%가 늘어난 일반會計총규모 9조5천9백5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2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2일까지 定期국회에 제출한다.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8%, 도매물가상승률을 12%로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예산규모증가를 내년도 經常 GNP성장률전망 23.1%보다 낮은수준으로 억제했다. 정부는 기본방향을 自主安保力量강화, 교육환경과 사회개발확충, 안정기반定着을 위한 健全재정과 낭비요인제거,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구축에 두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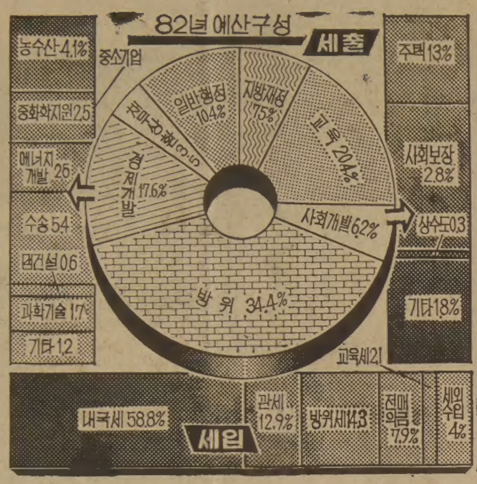
이를 위한 歲入財源은 內國稅23.1%증액을 비롯 교육세를 신설, 내년중 2천52억원(지방세분 5백20억원 제외)을 거두도록 하고있으며 국민조세부담률은 금년의 18.4%에서 18.9%로,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연간擔稅額은 21만1천6백70원에서 26만3천8백원으로 약25%(5만2천1백30원)이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추세와 비교해 수입보다 세금이 더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예산안은 防衛費가 GNP 6%수준의 금년보다 22.2% 늘어난 3조2천9백91억원으로 총세출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34.4%를 차지했고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增員등 교육투자를 33.1%늘려 구성비를 20.4%로 높였다. 주택·상수도·의료보호·지하철등국민기본需要해결을 위해 사회개발부문 예산을 30%늘린반면 경제개발 부문은 예산증가율에 크게못미치는 17.8%만 늘려 예산에서 차지하는비중도 사회개발6.2%, 경제개발17.6%(금년20%)로 경제개발 비중을 낮췄다. 경제개발 비중에는 금년같은 冷害대책비나 韓電出資등 특수요인이 빠진 농수산부문과 에너지부문예산이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도로·항만·수출지원의 증가율이 높았다.

일반행정비는 정부의 예산절감노력에도 불구 19.3%가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섰고 지방교부금은 38.3%가 늘어 교부율은 11.35%에서 12.2%로 높아졌다.

정부는 행정비절감을 위해 내년중 判·檢事80명, 교원7천4백3명을 제외한 일체의 공무원增員을 않기로하고 예상되는 퇴직자의 充員도 20%로 억제, 전체공무원定員의 4.5%, 7천9백25명을 감축운용키로했다. 또 행정공무원, 경찰, 교원등 공무원봉급을 일률9% 인상하고 下級직원에는 수당, 정보비지급방식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官用차량운용도 제편, 長·次官, 독립기관장을 제외한 일반승용차 1천3백27대를 8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우선내년중 15%인 1백99대를 줄이기로했다.

한편 내년도 특별會計총규모는 5조1천7백32억원, 純計로는 3조9천2백9억원으로 금년보다 16.6%가 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한국電氣·通信公社가 따로독립, 발족하는데 따른것이며 물가안정을위해 내년중 철도수·업료·체신요금등 公共料金은 크게올리지않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歲入 歲出豫算案 (단위:10억원)

歲入	82	81	증가율%	歲出	82	81	증가율%
內國稅	5,641.5	4,583.5	23.1	防衛費	3,299.1	2,698.9	22.2
關稅	1,236.1	949.7	30.2	教育費	1,958.4	1,464.6	33.7
防衛稅	1,367.0	1,029.6	32.8	社會開發	598.5	460.5	30.0
專賣益金	760.0	680.0	11.8	經濟開發	1,686.3	1,431.3	17.8
稅外收入	385.8	318.3	21.2	一般行政	1,006.3	843.2	19.3
借入金	—	290.0	—	地方財政	719.0	520.0	38.3
教育稅	205.2	—	—	債務償還및豫備費	327.9	432.6	24.1
合計	9,595.6	7,851.1	22.2	合計	9,595.6	7,851.1	22.2

◇稅目別 內國稅 전망 (단위:10억원)

구분	82예산안	81 예산	81 전망	增△減(81전망대비) 금액	증감률(%)
합계	5,641.5	4,583.5	4,566.9	1,074.6	23.5
직접세	1,802.1	1,432.9	1,476.4	325.7	22.1
소득세	1,007.6	795	841.9	165.7	19.7
법인세	721.8	597.7	575.6	146.2	25.4
상속세	21.4	11.9	17.4	4.0	23.4
자산재평가세	51.2	28.1	41.4	9.8	23.5
부당이득세	0.1	0.2	0.1	—	—
간접세	3,767.5	3,100.8	2,970.0	797.5	26.9
부가가치세	2,333.5	1,890.4	1,845.1	488.4	26.5
특별소비세	867.1	746.8	678.9	188.2	27.7
주세	468.2	387.3	375.8	92.4	24.6
전화세	94	73	66.4	27.6	41.6
증권거래세	4.7	3.3	3.8	0.9	23.1
기타	71.9	49.8	120.5	△48.6	△40.3

1천9백억 追更案마련
태풍피해 4百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純增규모 1천9백75억원의 81년도 追加更正예산안을 마련, 내달定期국회에 같이 제출한다. 19일 경제기획원의 追更案에 따르면 추가지출요인은 지난번의 태풍, 호우등 災害대책비 4백억원, 忠州댐 지방도로등 차관사업의 內資뒷받침 6백25억원, 監護所건설비 1백58억원등인데 정부는 이를 1천3백억원규모의 公債발행과 작년도 歲計 잉여금, 韓一銀行주식 대각代金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 公債는 연내에 中小企業社債금리와 비슷한 연 20%내외기준으로 割引아닌 額表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美蘇、波事態싸고 對立격화

美「最後통첩」같은警告는 現狀惡化"
蘇"西方압력 排除… 臨戰態勢 완비"

【워싱턴·모스크바18日AP合同】미국과 소련은 18일 폴란드노조의 反사회주의활동에 대한 소련의 최후통첩성 경고메시지가 폴란드정부에 전달된것과 때를같이하여 격렬한 상호비난전을 개시함으로써 폴란드사태를 둘러싼 東西긴장을 일층高潮시켰다.

레이건美행정부는 이날 소련이 폴란드정부에 강압을행사하는 동시에 폴란드反사회주의단체의 소련권이탈을 막기위해 폴란드국민을 위협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앨런·롬버그 국무성부대변인은 소련의 對폴란드 공식경고가 폴란드내정간섭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이같은 소련의 주장을 받아들일수없다고 경고했다.

롬버그부대변인은 또 소련의 행동이 단지 폴란드의 현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이날 『미국등 서방제국주의자들이 폴란드사태에 개입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우스티노프는 소련관영 타스통신으로 보도된 軍경비대창설기념 연설에서 서방의 근 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가중시키고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소련과 그 동맹들은 이같은 압력을 배제하고 사회주의공동체의 평화를 보전하기위해 군사력을 이용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西方제국주의자들이 온갖수단을 동원, 사회주의공동체의 기반을 붕괴시키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서방의 음모가 폴란드 국내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형태로 나타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우리들이 육군과 해군의 臨戰태세를 고도로 강화하고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평화를 외부위협으로부터 지키기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蘇、對波「최후통첩」全文

【바르샤바18日AP合同】소련당국이 18일 스타니스와프·카니아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앞으로 보낸 최후통첩적인 경고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와 소련정부는 폴란드공산당중앙위원회와 폴란드정부의 주의를 [illegible] 反蘇주의운동으로 돌리게 하지 않을수 없다. 여러사실들은 폴란드내에서 소련과 그 국내외정책에 반대하는 격심하고 체계적인 운동이 공개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反蘇운동의 주목적은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와 사회주의 이념자체를 중상, 비방하고 폴란드인민들에게 소련과 소련인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양국간의 형제의 우의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폴란드사회주의를 박멸하는데 있다. 광폭한 反蘇선전이 영화, 언론매체와 온갖 간행물의 구석구석으로부터 퍼지고있다. 9월초순 그다니스크에서 개최된 자유노조전국대회는 사실상 우리조국에대한 중상과 모욕을 가하는 [illegible]

현재 폴란드에서 자행되는 反蘇선전의 적대감의 규모와 강도와 깊이는 일부 제국주의국가에서도 발하는 反蘇히스테리의 [illegible] 상설 경연장이었다. 그다니스크대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동구권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반역적인 도발이었다. [illegible] 反蘇도발의 주동자들은 격을 갖고있다. [illegible]

蘇주의적 행동에 계속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것은 폴란드—소련관계에 막대한 해악을 초래할뿐아니라 소련의 맹방으로서의 폴란드의 의무및 폴란드의 중대한 국익에도 직접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우리는 폴란드공산당과 폴란드정부가 악의에찬 反蘇흑색선전및 소련에 대한 적대행동을 중단시키기위해 즉각 단호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할것을 기대한다.

波議會 24일소집
自律經營法案등 토의

【바르샤바18日AP合同】폴란드의회는 악화일로에있는 國內사태와 경제개혁안에 대한 정부보고를 듣기위해 오는24일과 25일 2일간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폴란드관영PAP通信이 18일 보도했다.

이通信은 폴란드의회가 또 본회의중 말썽많은 공장노동자들의 自律경영법안을 토의한다고 말했다.

업저버들은 폴란드의회가 自由노조 솔리대리티의 제2차 전국대회의 제2기회의 개최를 불과2일앞두고 개최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후통첩」속바웬사 폴란드自由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맨앞)가 蘇聯의 對폴란드 최후통첩이 보도되고 있는가운데 18일 카토비체탄광에서 정부및 광산노조대표들과 석탄증산문제를 협의한후 회의장을 떠나고있다. 【카토비체(폴란드) 19일AP合同】

稅制改革 심의 與野 조정예상

정부가 18일 발표한 稅制개혁안에 대해 民正黨이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의 인상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民韓·국민당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極小化시키고 稅부담을 최대한 經減시킨다는 기본방침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있어 稅制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은 정부의 稅制개혁안이 黨의 代案이 충분히 반영된것으로 보고있으며 다만 교육세법안과 방위세 재산세의 50% 일률부과 방식은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정돼야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民韓·국민당등은 교육세신설반대와 함께 稅制의 쟁점이 되고있는 부가가치세 개정문제와 근로소득세의 人的공제액 인상조치가 제외됐고 ▲조세감면 규제폭이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 『정부가 교육세 신설을 추진하고있는 싯점에서 이번 稅制개혁안은 국민전체의 擔稅면에서 볼때 사실상 감면의 효과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民韓黨은 그동안 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20만원선으로 인상시켜야하고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도 月30만원이하의 경우 현행10%를 20%로 인상시킬것을 주장해왔다.

國會日程 議題합의 3黨총무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총무들은 19일하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오는21일 개회되는 제108회 정기국회의사일정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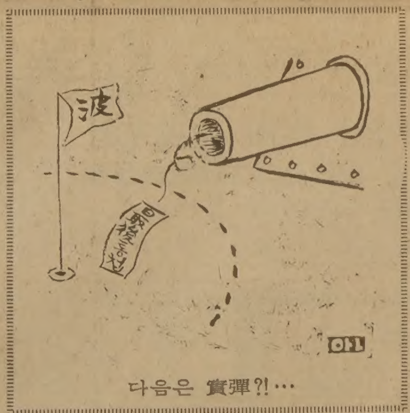
李鍾贊民正·高在清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는 이날 3시간에걸친 회담에서 본회의의제를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3개로하고 각당대표연설은 民正黨을 제외하고 民韓, 국민당순으로하며 본회의 對정부질문자수를 民正3, 民韓2, 국민1, 議政同友會1명으로했다.

총무회담은 또 예결위원수를 50명으로 결정하고 이를 民正27, 民韓15, 국민5, 議政同友會3명으로 배정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오는21일부터 12월19일까지 90일간의 회기동안 합의된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 의사일정은 다음과같다.

◇本會議 ▲9월21일=개회식 ▲22일=회기결정, 文公委등 구성 ▲23~25일=예결위구성, 의원對外활동보고 ▲26일~10월1일=휴회 ▲10월2일=총리시정연설 ▲5·6·7·8일=黨대표연설 ▲10·12·13일=對정부질문 ▲11월3·4일=추경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28일~12월2일=본예산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14~19일=일반 안건및 의원외교활동 추가보고 ◇예결위▲9월28일=위원장선출▲10월26일~11월2일=追更決算예비비 ▲11월5~27일=본예산안심의 ◇상임위▲10월14~27일=정부현황청취및 정책질의 ▲28일~11월27일=각종법안등의안등 처리 ▲12월3~12일=위원회 활동

社會漫評



다음은 實彈?!…

地平線

지난번「그러니까 81학년도 大入예비고사는 작년11월20일에 시행됐다. 교육개혁회오리 속에 시험날짜가 16일이나 늦추어진 것이다. 문교부는 본고사가 없어진 대학별 전형일정을 10여일씩 뒤로미루며, 고사성적 발표 날짜를 이듬해 1월17일로 공고했다. 채점과 사정기간은 58일.

▼문교부는 당초 이해의 예비고사 응시자를 70만명으로 잡았었다. 그 예상대로 하면, 전해 51만명의 채점기간 53일에 비추어, 채점기간 58일은 시일이 촉박하다. 이름에서 예비고사의「答案修正불허」란것이 나왔다. 그러나 이 58일은 본디가 법에어긋난것이었다. 예비고사는「50일이내 발표」를 못박고있기때문이다. 정작 뚜껑을열고 보니, 실제응시자는 58만명, 성적발표는 1월8일이었다. 「50일」에 대긴 했으나, 「答案修正 불허」의 혹은그대로 남았다.

▼예비고사의 채점기간이 문제되는것은 컴퓨터의 성능탓이다. 비록 나노秒(10억분의1초) 단위의 처리능력을 자랑하는 컴퓨터지만, 70만명분의 답안지를 판독하는데는 13일이 걸린다. 게다가「判讀不能」의 답안지가 나온다. 그중 많은것이 修正답안지. 이것을 人力으로 처리한는데 또다시 30일 정도의 품이 든다. 이 품을 덜고, 되도록 사람손을 배제하자는것이「答案修正불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光學文字判讀機(OCR) 2대가 새로운 채점컴퓨터(NCS) 4대로 바뀌었다. 한대에 15만달러(약1억5백만원)가는 새 컴퓨터는 연필로 표시한 답안지는 물론, 답안지의낙서까지 판별할능력이있다. 더구나 올부터 시행되는 학력고사는 커트라인·지역제한·복수지망이 없어져 일을많이덜었다. 신형 컴퓨터 도입때의 예상은, 새 기계의 성능으로 1주일, 시험제도 개혁으로 1주일의 채점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학력고사날짜는 11월24일로 나흘밖에 미룰수가없었다. 1월7일 성적발표까지의 여유는 45일. 뿐이랴, 水性펜,「答案修正불허」의 혹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4억원넘게 돈을 들인 효험은 도대체 무엇일까. 「答案修正불허」의 非교육성과, 수험생의 심리적부담등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그런 의문이 앞선다.

▼하긴 텔레비전의 퀴즈·프로는「땡-」한번으로 그친다. 해답의 修正은 없다. 1회性인 학력고사는 그점이 퀴즈와같다. 그래서 새 컴퓨터는 퀴즈·프로의 장식세트, 출제위원회는 그스폰서나다름 없는것인지도 모르겠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은: 온스당 US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호섭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대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영하 R) 423-3114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기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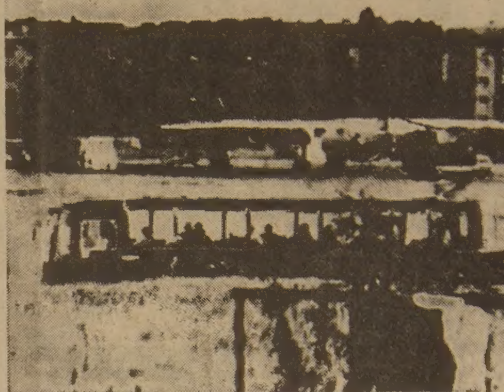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波警察、勞組수색 失敗

蘇최후통첩후 事務室진입 強力제지당해

바웬사 大主敎와 面談 對政府 仲裁說 나돌아

言論서도 蘇요구拒否 勞組의비난聲明등 보도



◇西獨에 강제착륙한 被拉폴란드 旅客機
18일 10명의 폴란드남녀납치범들에 의해 서독에있는 템펠호프공군기지에 강제착륙한 폴란드국영항공사소속 여객기의모습。앞에 이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탄 버스가보인다。【베를린18日AP聯合】

【바르샤바19日UPI聯合】폴란드자유노조를 파괴하라는 소련의 최후통첩과 다름없는요구에 용기를얻은 폴란드경찰은 18일 수색영장을 들고 노조인쇄소를 조사하려고했으나 경찰의 건물진입이 거부되었다고 자유노조측이 발표했다。

자유노조 지도자들은 폴란드정부에 反蘇활동을 분쇄하기위한 결정적이고 단호한조치를 취하라고한 소련의 요구와관련, 직접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를 거부하고있다。자유노조대변인 야누츠·오이츠키에비츠는 자유노조 전국상임위원회가 19일 긴급회의를열어 사태를 협의할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TV、라디오、신문들은 사실상 소련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신에 폴란드공산당 정치국과 정부가 발표한 자유노조정책 비난성명에대한 논평、방송만을 열거했다。

관영 PAP통신은 폴란드당국의 성명을 비난하는 수많은 자유노조 지방지부의 성명을 보도했다。

한편 자유노조와 정부당국간에 모종의 중재가 시도되고있다는 조짐도있다。

자유노조 바르샤바 지부대변인은 수색영장을 소지한사복경찰 5명이 자유노조 인쇄소를 조사하기위해 18일 市문소회사건물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수색하려했으나 노조간부들이 경찰들을『힘으로 아니고 말로』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경찰들의 방문은 자유노조를 단속하라는 소련의 요구에 따른 일련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바르샤바의 또 다른 노조대변인은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요젭·글렘프 폴란드 대주교를 18일 만났다고 말했다。

자유노조와 정부당국 양측에서 온건한세력으로 존경받고있는 강력한 가톨릭교회는 과거에도 위기가 발생할때중재역을 맡았다。

波학생 旅客機납치

면도칼등으로위협 西獨에 착륙

【베를린·바르샤바18日UPI聯合】소이탄과 면도칼로무장한 12명의 폴란드남녀『학생들』이 18일 40명의 승객및 승무원을 태운 폴란드로트항공사소속 국내선 여객기를 납치, 소련제트전투기 3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西베를린의 템펠호프 美공군기지에강제착륙시켰다고 템펠호프美공군기지대변인이밝혔다。

이 대변인은 3대의 소련제트전투기중 1대가 두차례씩이나 피납여객기를 템펠호프 美공군기지 상공까지 추격했다가 2대의 美공군헬리콥터가 피납여객기의 무사착륙을위해 에스코트에 나서자 템펠호프 공군기지상공에서 도주했다고 말했는데 정치관측통들은 소련전투기의 西베를린상공 출현이 외교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카토비체에서 바르샤바로 가던 폴란드항공소속의 이여객기를 납치한 17~22세의 남자9명과 여자3명등 12명의 『학생』들은 여객기를 템펠호프美공군기지에 착륙시킨뒤 곧 이 기지의 보안부대에 저항없이 투항, 西베를린당국에 넘겨져 20일 법정에 출두할것이라고 西베를린경찰이 밝혔다。

"東南亞등서 사용한 蘇화학무기 「黃雨」외 2種더있다"

美국방성서 조사

【워싱턴18日AP聯合】소련이 최면적인 화학무기『黃色의비』를 사용한것으로 알려진 東南亞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밖에 2종류의 또다른 化學 또는 生物무기가 사용되었을지 모른다고 미국방성관리들이 17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미국정부가『黃色의비』이외의 또다른 두가지 化學·生物무기가 사용되었을지 모른다는 목격자들과 의료관계자들의 보고를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이중하나는 검은모양의 형태로 되어있는『靑色의비』또는『회색의비』이며 다른하나는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것으로아마도 生物무기나 신경가스같은 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방성관리들은 이를 밝혀내기위해 전문가들이 6、7개의 표본을 조사중이며 실험은 수주일이 지나야 끝날것 같다고 말했는데『黃色의비』이외의 化學戰무기가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黃色의비』로 인한 증상이외의색다른 증상이 보고됨에 따른것이라고 말했다。

化學武器사용 否認

베트남外務省 聲明

【방콕18日聯合】베트남은 18일 베트남軍이 타이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미국의비난을 공식부인했다고 베트남통신(VNA)이 보도했다。

베트남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저지른 미국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기위해 레이건행정부가 베트남에대한 분별없는 중상을 재개하고 있다고 비난, 『온갖 중상과 왜곡으로는 아무도 기만할수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反越戰線 權力配分 집중토의

2차회담

【방콕18日AP聯合】캄보디아 거국적인 연합전선 구축협상을 벌이고있는 캄보디아의 3개 反베트남게릴라단체 지도자들은 18일 방콕에서 가진 2차회담에서「상호유익한 의견들을교환」했다고밝혔다。

前캄보디아국가원수 노로돔·시아누크公、反共系、크메르루주 정권지도자등 3人은 연합전선을 구성할경우의 권력배분문제를 집중토의했다。

메아리

우리눈엔 제주도가 신비의 寶庫로 보인다。이주옥같은 섬의 상징은 돌하르방이다。잡귀를 쫓기위해 4백여년전부터 만들어 정다 마을어귀나 서낭당에 버티고 서서 잡귀를 물리치자니 그인상은 늘 무섭다。

돌하르방의 얼굴이 관광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많이 달라졌다。민예품으로 제작되어 어느새 미남으로 둔갑했다。살짝 웃음을 짓는가 하면 고개를 숙여 끄고 윙크로 보낸다。제주도의 원형이 관광제주도로 변모하는 상징같다。

조선 숙종때 제주목사를 지낸 실학자 李衡祥은 「南宦博物」이라는 저술을 통해 3백년전 제주도의 생활상과 자연경관을 그려놓았다。섬의둘레는 4백80리, 정방과 천지연폭포의 폭이등을 기록했다。흥미를 끄는것은 당시 중국, 일본, 동남아 여러나라와 제주도와의 거리를 밝혀 놓은것이다。근거는 표류자들의 傳言이었다。뛰어난경관과 대양을향한 전진기지같은 그위치가 제주도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다。

자연과 관광개발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지못하면 피해는 언제나 자연쪽이 입는다。관광지로 부각될수록 「人害」의 걱정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한라산의 눈향나무(眞栢)까지 도벌하여 파는 형편이니 자연훼손을 더욱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관광과 무역의 측면에서 제주도는 홍콩과자주 비교된다。「국제화」의 꿈을 키우기위해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제시되었다。우선 내년부터 제주공항은 자유기착지가 된다。외국인 관광객이 비자없이도 보름동안 머물수 있다。「국제화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정의 주장도 들린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만명이 넘었다。85년까지 현재 구상대로라면 관광위락시설이 갖춰져 한해 국내외 관광객 2백50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늘고 있는 외국관광객은 평균 7·3일씩 우리나라에서 묵고 간다고 한다。관광공사조사에 의하면 이들 관광객은 한사람이 7백43달러를 쓴다。작년보다 늘어난 숫자다。이증가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관광한국의 센터가 되려면 아직 많은 편의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개발의 손길이 자연원형과 어울리게 관광 제주도를 지켜가기를 바란다。돌하르방처럼 인공적인 미남형은 되지 말아야 한다。

자유 寄着地

한국일보 詩壇

가을의 기도

金京洙

주여 벌써 가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짙푸른 하늘은, 더욱더 짙푸르게 하시고
깊은 산골짝에 쌓인 낙엽을 밟는 소리를
홀로 듣게 하소서。

홍수로 맑게 씻어낸 하늘,
맑게 고인 호수에、내가 내얼굴을
찾아 보게 하시고 봄 여름
흘린 땀 방울이 감미로운 열매되게
하소서。

눈물로 지내온 언덕너머
철없이 흘려보낸 음성을
두손 모아 줍게 하시고、나무끝
마지막 열매에 당신의 따사한
입김을 주소서。

月末2차勞組대회겨냥 反蘇확대에 쐐기

東歐圈에 영향파급意識…宣傳戰 성격

類例없는 超強硬 軍介入 序幕일지도

國際焦點

【모스크바18日AP聯合】폴란드에서 번지고있는 反蘇활동을 저지하기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조치를 취하라는 소련의요구는 계속적인 폴란드 자유노조의 政府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경고이다。소련지도층이 폴란드지도층에 보내는 강경한 어조의 성명문속에 들어있는 이 경고는 이달초에 열렸던 폴란드자유노조전국대회에서 나온 反蘇성명과 蘇블록노동자에 보내는 직접적인 호소에 대한 소련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련의 성명은 폴란드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사회무질서가 확대되고、폴란드의 蘇軍개입요청으로 이어져 소련이 폴란드사태에 직접적으로 군사개입한다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서곡일수도 있다고 모스크바의 한 서방외교관은 말했다。

이성명은 폴란드에서 뿐아니라 소련에서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폴란드내의 사태에 영향을 미치려는것과함께 소련시민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소련의 신문、방송、TV들은 최근 며칠간 폴란드자유노조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하고 있다。이와함께 東歐圈언론도 자유노조를 구성하라는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의 호소를 비난하는 소련노동자들의 편지를 싣고 있다。

소련지도자들은 이 성명으로인해 이달말에열리는 자유노조제2차전국대회에서 솔리다르노스크가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노조나 폴란드정부가 전국대회를 취소하기를 기대하고있는것으로 분석가들은 믿고 있다。

동서의 관측통들은 소련이 폴란드 자유노조가 더욱 힘을 키워나가기전에 바람직하지않으나 유혈사태를 초래할지라도 강력한 쐐기를 박으려 한는것같다고 믿고있다。

크렘린의 성명은 정부對정부의 요청형식으로 강력한사전경고의 내용을 담고있다。이것은 소련지도자들이 폴란드의 치안조직과 군대조직이 자유노조를 다스릴수 있을것으로 믿고있음을 시사하는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소련의 이성명은 자유노조에 대한 宣傳戰을 확대하려는데 주목적을 둔것이라고 해석하고있다。

성명의 내용은 매우 예리하고 몇개의 단어는 종전에 볼수없던 말들이며 강력한경고였다고 서방관측통들은 말했다。

소련은 자유노조가 지난달 전국대회를 열었을때 10만명 군대를 동원、폴란드 국경부근서 대규모 육·해·공군사훈련을 벌였다。서방외교관들은 훈련에 참가했던 몇몇 부대는 아직도 군사장비를갖추고 폴란드 국경부근에 머물러있다고 말한다。이러한 군사장비와 병력의잔류는 종전에 볼수없던 예외적인것은 아니다。

소련의 소식통들은 두가지 경우에 소련은 폴란드에 군사개입을 감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하나는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때고 다른하나는 폴란드가 바르샤바군사동맹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소련자신의 판단으로 개입할때라는 것이다。

소련 경고성명은 폴란드당국이 反蘇운동에 더이상 관용할 경우 양국관계를 크게 저해할뿐 아니라 폴란드동맹국에대한 의무와 폴란드국익에 정면배치되는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명은 최근 폴란드사태가 1955년 체결된 바르샤바조약의 어떤 항목에 해당한다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이조약에 의하면 회원국은 우호와협조의 정신으로 군사적협력을 하도록 되어있다。

소련정부는 폴란드 지도층과 정부가 악의적인反蘇선전과 적대행위를 방지하는조치를취할것을 강력히 희망하고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성명발표와 함께 보도했다。

이번성명은 지난 6월 소련공산당이 폴란드공산당에 보낸 경고성명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였다。성명의 내용은 먼저 폴란드에 공개된뒤 소련에서 발표되었다。

미국은 소련의 폴란드개입이 동서군축협상에 중대한위협을 줄것이라경고하고있다。그러나 소련정부의 폴란드정책은 군축협상의 전망에 구애받지않을것이라고 많은현지 서방외교관들은믿고있다。

유엔、폴·포트 캄代表權인정

베트남등의 逐出案 3년째否決

【유엔本部AP聯合】유엔총회는 베트남외 14개국의「캄보디아의 실각한 폴·포트정권대표를 유엔에서 축출하자」는 제안을 18일 3년째 부결시켰다。

79년1월의 베트남 침공으로 프놈펜에 헹·삼린정권이 들어선후에도 계속해서 폴·포트정권대표가 차지하고있다。

총회는 9개국 회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신임을 품기로한 40개심사대상국중에서 폴·포트대표권을 몰수하려는 베트남결의안을 반대77 찬성33 기권31표로 봉쇄했다。폴·포트대표에대한 지지국은 지난해보다 3개국이 늘어났다。

투표결과는 싱가포르、말레이지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등 아세안 국가들의승리였다。이결의안 제안자는 베트남을비롯 라오스、인도、쿠바등 14개나라였다。

대표권을가진「민주캄푸치아」는 캄보디아 서부지역에 게릴라전을 벌이고있다。캄보디아의 헹·삼린 현정권은 약20만명에 달하는 베트남군의 주둔으로 정권을유지하고 있다。

佛의회、死刑제폐지 가결

斷頭臺 사라진다

【파리18日AFP聯合】프랑스국민의회(下院)는 18일 유혈혁명을 벌친 기요틴(단두대)혁명기인 1791년 이나라에 도입돼 지난 1백89년간 사형제도를 폐지시켰다。

프랑스의회는 이날 프랑스와·미테랑사회당정부가 집권공약으로 제시한 사형제도폐지안을 찬성3백63표·반대1백1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킴으로써 歐共市(EC) 9개가맹국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나라가 되었다。

이날 프랑스하원을 통과한 사형제폐지법안은 상원에 회부돼 토론에 붙여지는데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간디에 罷業금지權

印上院 격론끝에 法案통과

【뉴델리18日AFP聯合】印度上院은 18일 장시간의 격론끝에 인디라·간디수상에게 광범위한 파업금지권한을 부여하는 말썽많은 법안을통과시켰다。

파업에관한 기존 대통령령과 대체될 이법안은 이날印度議政사상 기록적인 16시간의 격론끝에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미 下院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의 上院통과로 법률로 확정된 이법안은 파업가담자를 해고 또는 영장없이 체포하여 약식 재판에 회부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있다。

◇뉴욕 도착한 그로미코
안드레이·A·그로미코蘇聯외상(中央)이 유엔총회 참석차 17일 뉴욕에 도착, 유엔주재 蘇聯대표부로 들어가고있다。【뉴욕17日AP聯合】

埃회교도 反政시위

金曜예배후 連3週째

【카이로18日AP聯合】이집트수도 카이로 동부지역의 한 회교사원에서 18일 금요일예배가 끝난후 일단의 회교도들이 연3주째 금요예배후의 反政데모를 벌여 사복을입은 데모진압경찰과 충돌했다。

목격자들은 대부분이 젊은이들인 약50명의 데모대가 이날 낮 反政회교도거점인 에인·알·하예사원에서 예배에 참석한후 알라·아크바르(신은위대하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데모에 나서자 대기중이던 일단의 사복경찰이 즉각 개입, 최루탄을 발사하며 데모대를 해산시켰다고 전했다。

◇82年型 여성用品
82년 봄철 린제리·쇼에서 브러지어·팬티·거들 3점으로 한세트를 이룬 드리·피스파운데이션을 선보이고있는 미스英國 미쉘양。【런던18日AP聯合】

레이건、年內 西獨방문

11월 브레즈네프 訪獨이후

【본18日AFP聯合】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은 18일 레이건美대통령이 금년중 西獨을 공식방문, 양국우호관계를 직접확인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슈미트수상은 이날 연방예산을 심의하는 하원에 출석, 연설을통해 5일전 西獨을 방문한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을 통해 레이건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밝히고 西獨방문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蘇聯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西獨을 방문하는 11월 이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抗칼슘劑 동맥경화증 豫防

美 보스턴大 크랩쉬博士발표

【워싱턴18日AP聯合】체내의 과도한 칼슘사용이나 축적을 방지하기위해 사용되는 抗칼슘劑가 동맥경화증예방에 큰 효과가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턴大學 메디컬·센터의 심장혈관연구소의 다이어터·M·크랩쉬 박사는 18일 발간된 사이언스·매거진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 2년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抗칼슘劑를 투약한 원숭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원숭이의 경우보다 동맥경화증세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떼의 원숭이들에게는 혈관내 지방형성의 주범인 버터와 기타 콜레스테롤분의 음식을 제공하고 또다른 한떼의 원숭이들에게는 똑같은 음식에다 추가로 抗칼슘劑를 투약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海外토픽

婚費 6백64만엔

★日本 5년전보다 2倍

최근 결혼하는 日本신혼부부들은 약혼비용에서부터 스위트홈을 꾸밀때까지 평균 6백64만엔을 쓰고있으며 이비용은 5년전의 커플당2백85만엔에비해 2배이상 늘어난것이라고 한조사보고서가 지적했다。

일본 三和은행이 최근 東京과 大阪에서 결혼한 신혼부부 4백21쌍을 상대로조사한바에따르면 이들 신혼부부는 결혼비용가운데 1백60만엔을 가구와 가전제품구입에 쓰고있으며 1백50만엔은 결혼식비용에 그리고 신혼여행에는 70만8천엔을 쓰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전에는 결혼비용의 53%를부모가 부담한데비해 요즘에는 부모의 부담률이 40%로 낮아졌다는것。

또 日本신혼부부의 반이상이 밀월여행장소로 하와이를 찾고있다。【東京=AP】

오늘의小史 <20일>

- ▲英, 南阿연방령 공포 (1909)
- ▲蘇, 東獨의 主權회복협정조인 (1955)
- ▲革裁, 崔仁圭등에 死刑선고 (1961)
- ▲서울에 無人공중전화 등장 (1962)
- ▲서울시, 광주대단지 起工 (1970)
- ▲南北赤, 家族찾기예비회담, 판문점서 첫 회의 (1971)
- ▲中央아프리카에 쿠데타, 보카사皇帝 실각 (1979)

◆◆◆◆◆◆◆ 안 내 말 씀 ◆◆◆◆◆◆◆

평소 저희 **삼복식품**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식품점은 종전에는 화요일에 문을 닫았으나 10월6일부터는 화요일에 문을 열고 대신 일요일에는 오후4시부터 영업을 하기로 했아오니 고객 여러분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손질해 놓은 채소, 값싸고 싱싱한 갈비, 화요일 아침이면 한국에서 맛보던 싱싱한 가재미와 동태, 살아있는 게 그리고 민어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요.

삼복식품은 세일하는 것만 싸다고 어느식품에서 그런다는데

천만에! 우리는 어느 식품점보다도 더 좋은 품질, 더 나은 써비스 그리고 더 싼 값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지요.

한번 와 보세요!

왜 "삼복식품, 삼복식품"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 743−8270

延·高大 잇달아 침몰

大學야구 東國·漢陽에 굴복

漢陽大、전원 安打를 기록

대학야구의 강자延·高大가 하루에 잇달아 침몰했다.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추계대학야구리그전 예선 9일째 경기서 A조의 高麗大는 4명의투수를 동원했으나 漢陽大에 전원안타를 허용하며 12-5로 대패했으며 B조의 延世大는 東國大에13안타를 얻어맞고 4-1로완패했다.

東國大는 2년생 좌완李文輪과 우완金奉根의역투로 延世大타봉을 2안타·4四球로 압도하며 金城漢의 3회 말결승2점 홈런등으로 완승, 5승1패로 예선B조 수위를마크, 3승2무1패의 仁荷大와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延世大는 2승2무2패로 예선탈락의 위기에 몰려있다.

◇제9일전적

▲A조

고려대 (5승1패) 002 000 102 — 5

한양대 (5승) 040 040 31× — 12

〈7회계속경기〉

▲홈런=金光林(7회·고려)

▲B조

한양대 (5승1무) 000 001 100 — 2

건국대 (2승1무2패) 200 000 000 — 2

▲홈런=黃炳一(1회·2점·건대)

연세대 (2승2무2패) 000 010 000 — 1

동국대 (5승1패) 012 100 00× — 4

▲홈런=張勳(5회·연세) 金城漢(3회·2점·동국)

韓美 첫리그戰 美式축구

漢大、이글즈팀에 19-15

제1회韓美미식축구리그전이 올해 처음 창설되어 19일부터 경기에 들어갔다.

이번 리그전에는 서울大·高麗大·延世大·成均館大·漢陽大등 서울지역 5개대학팀과 3개 駐韓美國人팀이 출전, 오는10월31일까지 매주말마다 4게임씩을 가져 대회우승을 가리게 된다. 美國팀들은 서울의 이글즈및제츠와 大邱의 스파르탄즈등으로 연령은 20대이며체격·체력·경기경험등에서 국내 대학팀보다 앞서있다.

리그전이열리는 장소는 서울龍山 美8군영내의 롬바르디구장및 오는21일 개장될 체육공원내의 미식축구경기장(서울대교옆 漢江고수부지)등 3곳이다.

韓美리그전이 창설됨에따라 국내팀의 경기수준은 크게향상될것으로 기대되며 팬확보에도 도움이돼 미식축구인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있다. 대한미식축구협회는 내년부터는 釜山大、東亞大、海洋大、產業大등 釜山의 4개팀도 리그전에 출전토록함으로써 대회규모를 확대할계획이다.

19일 龍山 롬바르디구장에서 열린 첫경기에서 漢陽大는 패기와 팀웍을 살려 이글즈를 19-15로꺾고 첫승리를 거두었다.

漢陽大는 첫쿼터3분께 레프트하프(LH) 金鍾民이 왼쪽측면돌파로 40야드 독주끝에 터치다운, 선제6점을뽑아냈다. 이글즈도 이어 3분뒤 전방패스로 35야드 전진한뒤 타이트엔드(TE) 데니스·해리슨이 중앙돌파로 6점을만회, 팽팽한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漢陽大는 라이트하프(RH) 楊秀鉉의 러닝플레이로 계속공격권을얻고 과감한 태클로 상대공격을 저지, 승리했다.

◇첫날전적

한양대 19 (0-2, 7-0, 6-7, 6-6) 15 이글즈

◇과감한 中央돌파 과감한 중앙돌파 작전을 펼치고있는 漢陽大 주자를 이글즈 수비들이 완강히 태클하고 있다.

한국、本選진출좌절

세계男子핸드볼豫選, 日에 29-24

【東京支社】제10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려는 한국의꿈은 日本벽에 막혀 좌절되었다. 18일東京체육관서 진행된 아시아지역 B조예선 日本과 최종결전서 한국은 전반15분이지나면서부터 팀·플레이의 난조를보여 18-10으로 전반을 리드당한후 후반 추격의 보람도없이 29-24로 졌다.

한국은 GK 林圭夏의 부상이 완쾌되지않아 수비의헛점을 보인데다 日本 장신의 중앙돌파와 양 사이드 돌파를 막지못해 졌다.

◇제2차전

일본 29 (11-14, 18-10) 24 한국

일본 18 (11-7, 7-10) 17 중공

▲종합순위=①일본2승 ②한국1승1패 ③중공2패

韓·獨미술교류전 本 國立박물관서

韓·獨미술교류전의 첫번째 한국측전시회가 18일하오 본의 국립알베르트·쾨니히박물관에서 개막됐다.

한국미술가 39명의 작품이 출품된 이전시회의 주제는 「한국의 풍경과 동물전」으로 金基昶, 金玉振, 朴秦洙등 동양화가와 任直淳, 金炯董등 서양화가들이참가했다.

서독측에서는 발터·셸前대통령과 루돌프·호프세스소報相, 한스·다니엘 본시장등과 미술계인사들이 참가했는데 쾨니히박물관의 노비스관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전통회화와 조각에 놀라움을 금치못했으며 역사가 짧은것으로 생각했던한국의 서양화수준이 극히높은수준임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5회 李箱文學賞에 作家朴婉緖씨 수상

【본=李盛夫기자】

月刊 文藝誌 「文學思想」社 제정 제5회 李箱文學賞 수상자로 여류작가 朴婉緖씨(52)가 뽑혔다. 수상작은 단편소설 「엄마의 말뚝」(「文學思想」81년8월호발표). 고료는 1백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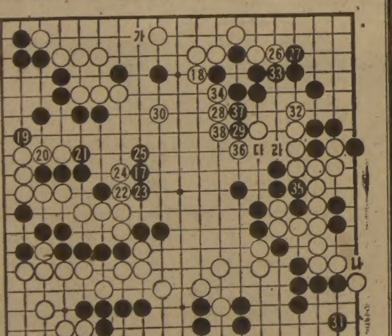
시상식은 10월 중순. 李箱文學賞은 단편소설을 수상대상으로 하며, 1년간 각문예지에 발표된 4백여편의 작품가운데 한 작품을 가려 시상하고 있다.

◇朴婉緖씨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7譜 117~138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
黑(6段) 姜哲民



우변白을 수중에 넣지않으면 黑은 도저히 승산이없다. 그러나 姜6단은 직접·간접으로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표정은 지극히 담담. 여전히 즐거운 낯이다. 어떻게보면 던지기에앞서 한번멋있게 싸워볼 작정같기도하고….

그래서 갑자기 黑17쪽을 써봤는데 이것은 말할것도없이 다음 黑19이하로 좌측에서 수상전을 벌이려는 노림이다. 하나 白20, 黑21다음의 白22가 호착. 이렇게 돌고나가서는 역시 黑은 부족이고 게다가 黑25가 필요해서 선수마저 잃고말았다.

6단은 또 그때엔 독백이다. 『바둑이, 바둑이…』 웨이러나는 끝말을 중얼거리고 머리를 연신 젓는다.

그럴줄 알았더라면 黑17이하의 공

黑、總攻擊 허사…不計敗

연한 손찌검은 안했을 터인데, 아무리 보아도 큰실수를 범했다는 自嘲이다.

원래 黑17은 상변 18자리를 밀어야했다. 이곳이 급소였던 것이다. 더구나 黑18이면 다음에 黑「가」를 노리게되니 무조건 선수라해도 좋은곳이었다.

그는 여하간 白이26, 28을 두어버린 때문에 여태까지 黑이 돌을들여오던 우변 白대마공격은 가망이 없게되었다.

姜6단은 그제야 우하귀를 黑31로 지켰지만 이때는 벌써 던질마음이 앞섰을지 모른다. 정수를 찾는다면 31은 「나」에 먹여친 곳이다.

白38때 『안되겠군』하며 돌을 거두었지만 白은 유사시에 「나」자리를 이으면 완생이고, 또38다음 黑이「다」로 끊었자 白「라」로부터 연단수로 몰리면 견디내기가 어렵다. 【二八】

◇헤딩 숏… 전반39분께 金贊李이 센터링한 볼을 장신河德潤이 國民銀 GK 姜昌根보다 높이떠 헤딩, 2번째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浦鐵·忠義로 우승 壓縮

實業축구聯盟戰

浦鐵 金萬壽선제골 信託눌러

忠義 金喆鎬수훈 國民銀꺾고

금년도 실업축구 연맹전의 패권을 놓고 浦項製鐵과 忠義가 치열한 경쟁을벌이고있다. 浦鐵은 19일 효창운동장서벌어진 후기리그전 14일째 경기에서 전반4분 金萬壽가 미드필드왼쪽에서 金哲洙가 내준 볼을잡아 50여m 독주끝에 서울信託 GK를 제치고숏, 선제점을 올렸으며 전반 35분에는 朴武洪이 한골을 추가하여 전반에서 승세를 굳히고 서울信託銀行을 2-1로 물리쳐 전후기리그 통산 7승4무승부를 기록, 18승점으로 선두를 고수했다.

海軍 아깝게 우승圈서 탈락

이날忠義도 전반 金喆浩·河德潤의 수훈골로 國民銀에 2-1로 이겨 5승5무승부를 기록하여 15승점으로 단독2위에 나섰다.

그러나 줄기차게 선두浦鐵을 쫓던 강호 海軍은 이날 星武와 0-0으로 비김으로써 5승5무1패를기록, 우승권쟁에서 아깝게 제동이 걸렸다.

선두浦鐵은 앞으로 住宅銀과의 한게임을 남기고 있으며, 忠義는 서울信託·韓一銀과의 두게임을남기고있어 어느팀에 우승이 돌아갈지 예측할수 없는상태다.

忠義는 전반10분에 골게터인 河德潤이 오른쪽에서 센터링, 金喆浩가 페널티 에리어안 왼쪽에서 이볼을잡아 선제점을 올렸으며 39분에河德潤이 문전헤딩숏으로 다시한골을 추가하여 승세를 굳혔다.

國民銀은 후반 36분께 朴祥絲의 터닝숏으로 1점을간신히 만회했다. 海軍은 전반 위력있는 공격을 펼쳐 李容秀·金光明등이 예리한 숏을 터뜨렸으나 크로스바를 빗나가 득점하지 못했다.

星武는 후반에서 심기일전 기동력이 떨어진 海軍을 밀어붙여 대등한경기를펼쳤다.

◇제14일전적

충의 2 (2-0, 0-1) 1 국민은행 (5승5무)(4승2무2패)

해군 0 (0-0, 0-0) 0 성무 (5승5무1패)(3승2무5패)

포항제철 2 (2-0, 0-1) 1 서울신탁 (7승4무)(3승3무5패)

孫基禎씨 「五輪투구」보도로 最優秀賞

日民放聯결정 고바야시記者 2차取材위해 西獨으로

속보=일본 민간방송연맹은 17일 孫基禎선수의투구방문제(한국일보 6월21일자9면보도)를 현지르포로보도한 일본 MBC보도부 고바야시·쇼이찌(小林治一·29)기자에게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고바야시 기자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당시마라톤우승자인 孫基禎선수에게 부상으로 수여되어야 할 그리스의국보급투구(古代그리스 청동제품)가 孫씨에게 전달되지않고 아직 베를린 박물관에 보관돼있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지난 6월 일본서독·그리스·영국·한국등에 출장,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취재했다. 그의 취재내용은 6월23일밤 방송돼 일본에서 큰화제가 됐었다.

孫씨도向獨 IOC總會서 실마리 풀지도

이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의 아오모리(青森)·홋까이도(北海道)등 지방방송에서도 같은내용을 보도했고 요미우리(讀賣)와 「마라톤우승자인 孫基禎선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1시간동안 특집방송됐다.

고바야시 기자는 오는23일 이문제를 두번째 취재하기 위해 서독으로 떠나 18일 베를린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孫基禎씨도 초청을 받아 베를린에서 孫씨와 만나 상세한 2차취재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孫씨는 오는 27일 대회가 끝난뒤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 참석, 당시 IOC총회가 투구를 孫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는 독일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총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MBC측은 고바야시 기자가 2차 취재가 끝나면 10월14일 2차취재내용을 보도 특집방송할 예정이다. 고바야시 기자는 『이번 바덴바덴 IOC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IOC위원들을 상대로 투구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취재할 계획』이라면서 투구는 꼭 孫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東京支社】

成大 2連勝 선두에

대학배구 全北에 多樣한공격

成均館大가 2연승을기록, 제9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우수대학배구대회서 선두에 나섰다. 成均館大는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사흘째경기서 전력이떨어지는 全北大에 다양한 공격을 퍼부은끝에 스트레이트승을 거두었으며 全北大는 3연패를 기록했다.

이날 成均館大는 주공 嚴漢柱(1m92)가 중앙에서 강·연타를 퍼붓고 1년생金相保(1m92)가 블로킹에서 맹활약, 첫세트를 15-12로 선취했다. 成大는 2세트들어서도 레프트주공 姜和秀의 오픈강타와 車海元의 속공으로 全北大의 추격을 따돌리고 15-9로 승리, 안정권에 들어섰다. 全北大는 주장 文圭洪(1m88)이 레프트에서 분전했으나 3세트역시 成大 嚴漢柱 金相保의 블로킹, 세터 姜泰求의 페인트, 金相保의 라이트돌파에 속수무책, 15-11로 물러남으로써 3-0으로 완패했다.

◇제5일전적

성균관대 3 (15-11, 15-9, 15-12) 0 전북대학 (2승)(3패)

▲번외경기

경기대학 3 (15-8, 15-10, 15-9) 0 쿠웨이트

徽文中 결승進出

市長盃쟁탈 氷球

제1회 서울시장배쟁탈 서울시 중고 아이스하키대회4일째 경기가 19일 동대문링크에서 열려 徽文中은 培文中과의 경기서 3피리어드에 귀중한 결승골을 얻고 2-1로 승리, 중학부 결승전에 진출했다. 중학부 1회전에서 光城中은 첫피리어드에서 대거 5점을 따내 초반에 대세를 결정하고 景城中에 7-1로 승리 普成中과 결승진출권을 놓고 20일 일전을 펼친다.

◇제4일전적

▲중학부1회전

광성중학 7 (0-1, 2-0, 5-0) 1 경성중학

▲동2회전

휘문중학 2 (1-0, 0-1, 1-0) 1 배문중학

◇제3일전적

▲고등부B조

보성고교 4 (1-0, 1-1, 2-1) 2 휘문고교 (2승)(2패)

배문고교 2 (0-1, 0-1, 2-0) 2 중동고교 (1승1무)(1승1무1패)

崔東原 선수에 신상명세 要求

美야구 제이스球團

【터론토支社=柳承琨기자】 캐나다의 터론토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美國 프로야구 아메리컨·리그 東部지구 소속의 터론토·블루제이스팀은 한국의 崔東原(롯데·오리온스소속)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낼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고교시절부터의 성적과 자세한 신상명세를보내 줄것을 요청했다.

晋高 패권

青龍旗 중고蹴球

【釜山=龍】 晋州高가 제25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축구대회(釜山日報주최)서 첫패권을 차지했다. 晋州高는 19일 구덕운동장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光州崇義實高를 2-1로꺾고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고등부결승

진주고교 2 (1-1, 1-0) 1 광주숭의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범스태드 아저씨한테 장난 좀 쳐볼까" "그래"

"여보, 밖에 나가 우편물 가져올께"

"소다수병에 낡은 통조림 깡통, 거기다가 집 포장지까지 있네?" 히히 호호

"제기, 이건 우리가 받은 것중 최악의 잡동사니 우편물이군"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피아노 학교 개교

금번 본인들은 하기와 같이 후진양성을 위한 피아노 학교를 개설하였음을 삼가 알립니다.

Insung Chun

서울출생
ELSIE BENNETT에게서 사사. I' ECOLE VINCENT— D'INDY에서 석사 (YVONNE HUBERT에게서 사사). JUILLIARD음악학교 수학 (SASCHA GORODNITZKY에게서 사사). TEMPLE대학교에서 수학(CANADA COUNCIL장학금으로)(ADELE MARCUS에게서 사사). CBC, MONTLEAL & TOROTO.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RADIO CANADA를 통해 연주방송, MASSEY HALL에서 연주, ST. LAWRENCE CENTRE에서 연주, SALLE CLAUDE CHAMPAGNE (몬트리올)에서 연주. CARNEGIE RECITAL HALL (뉴욕)에서연주. LOYOLA COLLEGE (몬트리올)에서 피아노 교수, TEMPLE 대학교 (필라델피아)에서 피아노 교수.

the Piano Academy of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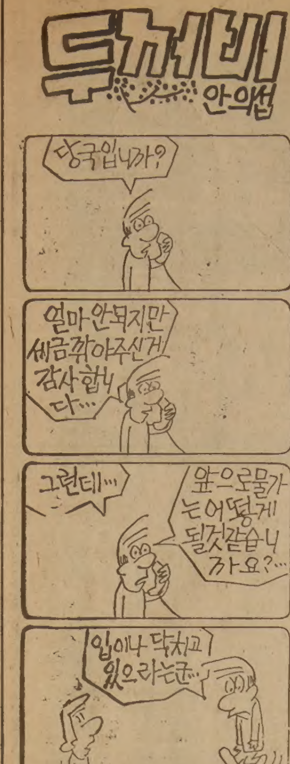
* 본 아카데미는 교육용 전자피아노를 포함 10대의 피아노를 갖추어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완전한 시설을 갖추었읍니다.
* 기성피아니스트의 교육과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교실등도 마련하였읍니다.
* 피아노 교육실기와 이론 역사등에 관하여 책임지도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직접 내방 하시든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James Tweedie

I' ECOLE VINCENT— D' INDY에서 음악학사와 음악석사학위. TEMPLE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 음악형태학 전공(장학생), NATALIE PEPIN, YVONNE HUBERT, HARVEY WEDEEN 에게서 사사, TEMPLE 대학교에서 핏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MBLER FESTIVAL프로그램 작성, TEMPLE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 강의, CTP의 피아노 관계회원, CBC몬트리올에서 연주, CBC 동부 캐나다에서 연주, 필라델피아에서 독주회, MOZART— ON— THE SQUARE FESTIVAL에서 독주.

Call 968-9370 109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5R 1V4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水上음식점 완전히 撤去한다

10월말 지나면 社會淨化차원서 強制로

觀光資源한해 극소수만 허용키로

말썽이 잦았던 전국의 수상음식점이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전히 철거된다.

수상음식점은 20여년전 서울의 한강상류에 등장한이후 전국의 주요강과 호수, 하천, 저수지등에 확산, 폐수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주야로 영업을 계속, 시민들의 식수원을 포함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됐으며 이에따라 여러차례에걸쳐 「강제철거」「집행유예」를 번복하는 말썽의 씨가 되어왔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수상음식점들을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없애기로 확정, 보사부를 주관부처로 사회정화위원회, 내무부, 건설부, 환경청등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수상음식점 일제정비계획을 확정한것.

보사부는 현재 전국의 수상음식점이 모두 1백23개소인것으로 집계하고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것으로 자연보호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보사부가 파악한 수상음식점가운데 허가업소는 3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개소가 무허가인데 서울의 광나루, 뚝섬등지를비롯, 경기, 강원, 충북지역등 관광수계에만 60%가넘는 80개가 몰려있다.

정부는 오는10월말까지 자진철거기간을 두고 이기간이 지나면 강제철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식수원오염과 직접상관이 없는 호수, 저수지등에 위치한 수상음식점가운데 관광자원으로 존속시키는것이 합당할경우 오물처리시설을 의무화시켜 극소수업소만 허가업소로 남겨두기로했다.

서울일원의 수상음식점은 지난79년7월 서울시가 8백만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수진오염을 들어 하천점용허가중지조치를 한후 80년중 3차례나 철거령을 내렸으나 실효없는 행정지시에 그쳤다.

또 환경청, 내무부, 건설부등도 전국 각시·도에 하천점용재허가금지, 철거이전대책수립, 수상음식점 관리지침등을 시달, 소관업무별로 수상음식점에대한 철거, 정비대책을 산발적으로 펴왔으나 허탕이었다.

海外관련 民願 국제協調

治安本部 인터폴에 신고센터

치안본부는 19일 정부의 해외진출확대및 여행자유화 방침에따라 국민들의 해외관련 민원이 급증할것으로보고 이런 같은 민원을 국제수사협조체제강화를통해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

치안본부가 처리해 주기로 한 해외민원은▲여행중 억울한 피해를봤을때 ▲소식단절된 해외근로자의 안부확인및 소재파악▲외국영해에서 변사한 선원등의 사인규명▲외국으로 도주한자의 소재▲외국회사의 유령회사 여부▲국제결혼때 상대방 중혼여부▲기타 외국수사기관과 관련된 사항등이다.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수사과 국제형사계(인터폴)에 해외민원신고센터(전화 [illegible])를 설치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白鹿潭에 올첫얼음

【濟州=聯】 漢拏山 정상 白鹿潭에 올가을들어 처음으로 19일 새벽 서리와 함께 두께 2mm의 얼음이 얼었다. 이번의 白鹿潭결빙은 예년보다 10일가량 빠른것이다.

高校에「컴퓨터敎師」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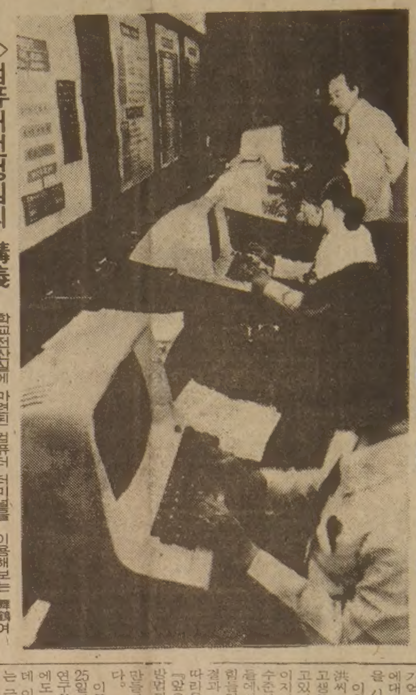
서울市敎委 서울高·京畿高·舞鶴女高에 단말장치

단추만 누르면 친절한 說明

연습문제 내주고 採點까지

正答맞춰야 다음 과목으로

칭찬·꾸지람도 映像에 방영



◇컴퓨터선생님의 講義 학교전산실에 마련된 컴퓨터 터미널을 이용해보는 舞鶴여고학생들. 자신이누르는 교과목이 나타나고 시험문제가 출제되자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고등학교교실에 「컴퓨터교사」가 등장했다. 19일 서울시교위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 (소장 成琦秀박사)의 협조를얻어 서울高, 京畿여고, 舞鶴여고등 3개인문고교에 컴퓨터교육기재인 플레이토시스팀 (PLATO·Programmed Logic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의 단말장치인 IST-2터미널을 가동시켰다.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 단추만 누르면 정확한 설명과함께 연습문제까지 내주고 친절하게 채점까지 해주는 이컴퓨터단말장치의 등장으로 콩나물교실에서는 감히엄두도못내는 교사(컴퓨터)와 학생사이의 1對1교육이 가능하게됐다. 이시스팀은 이밖에 컴퓨터의 능력을이용, 지진아교육과 영재교육도 가능하며 교습방법도 칭찬과 꾸지람등한 반복교육을 할수있어 교사와의 직접접촉을통한 교습에 못지않은 교육효과를 얻을수가 있다.

플레이토 시스팀은 터미널과 주컴퓨터, 교재등 3개요소로 구성돼있는데 학생이 터미널앞에서 단추를 누르면 주컴퓨터에 기억돼있는 교재가 터미널의 영상에 나타나는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도중 이 컴퓨터교사는 주·객관식 문제를 모두제출, 학생들이 맞힌경우 「훌륭하다,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다」는 영상을나타내고 틀리면 맞힐때까지 문제가 반복되며 정답을 알기전에는 다음과정으로 진도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이들 3개학교에 도입된 단말장치는 각각 1대씩으로 모두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컴퓨터인 사이버 174와 체신부전용회선으로 연결돼있는데 이 사이버 174주컴퓨터에는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과 대학원과정의 모든 교과목이 수록돼있고 앞으로 교재가 개발되면 교과목은 얼마든지 늘어날수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시스팀이 정착보급되려면 교재의 한글화와 교과과정의 개발, 터미널의 국산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의 사이버 174 컴퓨터에 기억돼있는 8백개의 교과목은모두 영어로만 구성돼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이용이 쉽지않으며, 교육방식 또한 우리실정에 맞도록 개선할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원은 오는10월부터 플레이토 시스팀이 설치된 학교의교사 10명과 시교위연구원 2~3명등에 대해 플레이토 시스팀의 이해와 이용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3개월동안 실시, 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고교 교과과정에맞는 교재를 개발토록 유도하고 원칙적인 교육을통해 교과과정의 한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위는 이번 3개인문고교에대한 시스팀 개통에 앞서 지난4월부터 城東기계공고 공업계측과에 실험적으로 이시스팀을 운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이학교에서는 당시 전류와전압, 저항간의 관계를 설명하는「옴(Ohm)의 법칙」과「심볼로직」등 두가지 교과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 주컴퓨터에 기억시켜 3개학년 1백80명에대해 주39시간씩 실제수업을 시켰었다는것.

이학교 공업계측과장 張吉洪씨(42)는 「옴의법칙은 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할만큼 중요한 법칙이지만 종전의 학습방법으로 수준이 차차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결과 진도가 떨어진 학생도 따라올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실험실습에 대한 방법과 요령을 컴퓨터교재로 만들어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全國의 12구간을 수동즉시 통화로

체신부

체신부는 20일0시를 기해 서울-靈光, 부산-議政府, 大邱-議政府등 12개구간의 시외전화를 수동즉시 통화구간으로 변경, 지금까지 30분이상기다리던 시외통화 대기시간을 5분이내로 단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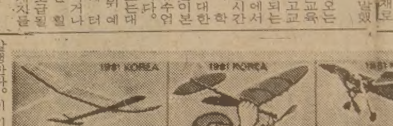
이에따라 종전지방에서 사용하던 시외통화청구번호 101번은 102번으로 바꾸고 서울에서는 각도단위로 정해져있는 수동즉시 청구번호를 사용하게된다.

이번에 개통된 수동즉시구간은 다음과같다.

▲서울-華化、忠州、英陽、蔚陵、青松、靈光、靈岩、和順、華川▲釜山-議政府▲大邱-議政府▲靈光-法聖浦

모형항공기 대회 기념우표5種발행

체신부는 20일 모형항공기대회기념우표 (사진) 5종을 발행한다. 이 기념우표는 글라이더모형 10원짜리, 고무동력모형 20원짜리, 유선조정모형 40원짜리, 무선조정헬리콥터모형 80원짜리등인데 발행장수는 각 2백만장씩이다.



農村學生 體力앞서

慶北敎委 中小도시학생들 보다

【大邱=聯】 농촌지방 학생들의 체력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경북도교육위원회가 지난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82학년도 고교및 대학입학을 위한 체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남학생들의 경우 20점만점자가 漆谷郡은 전체의 86·4%, 軍威郡은 72·3%인데비해 龜尾市는 47·9%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만점자는 慶山郡이 전체의 85·6%인데반해 龜尾市는 31·9%, 榮州市는 29·4%에 불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체력이 중소도시의 학생보다 뛰어난것으로 밝혀졌다.

중고서관
535-1920
714 BLOOR ST.

流星의 賊

明暗⑧

<18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사맹(司盟)의 벼슬을 굳이 사양하는 계남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사람을 잘 본 것이로구나』

하고 흐뭇해 했다.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홍공이야말로 진군자(眞君子)라고 할 수가 있다』

고 사용(司勇)의 자리를 계남을 위해 마련해 주었다. 사용은 오위(五衛)에 속하는 말직(末職)이지만 정구품(正九品)이다.

국록을 먹는 신분이 된 홍계남은 기쁘기 한량이 없었다. 안성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고, 어머니에게 갑사 한필을 선물로서 보냈다.

그런데 계남의 하루하루는 기대한 바와는 달리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기강이 해이한 것은 말할것도 없고 모두들 다투어 게으름을 부리고 부정한 수입을 탐하기만 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애써 직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단시(異端視)하여 사사건건 방해를 놓았다.

어느날이다. 홍계남 사용이 자기막하에 있는 군졸을 모아보았더니 모인자가 반수에 미달했다. 계남은 군졸의 근무평정(勤務評定)을 할 양으로 결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상사(上司)에 올렸더니 상사는 그 문서를 눈여겨 보지도 않고 함속에 넣어버리곤 자물쇠를 잠갔다.

『결석자를 견책해야 할것 아닙니까』

하고 계남이 따졌다.

그러자 상사가 말하길

『부하를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살아 가기가 힘들어 어쩌다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를 일일이 따져 벌을 준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 정도의 것은 눈감아 주는게 당연하니라』

『부하를 아끼는 것도 좋고 소소한 결점엔 눈 감아주는 것도 좋지만 군졸의 의무는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의무를 포기한 자를 벌하지 않는다면 기강이 서질않습니다. 군졸에 기강이 없으면 오합지졸(烏合之卒)과 다를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고 계남이 얼굴을 붉혀가며 항변했으나 상사는

『자기만 똑똑한 척, 자기만 정당한 척 말고 물러나란』

고 일갈했다.

계남은 울분을 참고 돌아설 수 밖에 없었으나 그날밤 이영을 찾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이한 기강을개탄했다.

이영이 조용히 듣고 있더니

『홍공, 서둘지 말고 모가 나지 말게. 대세를 혼자서 바꿀순 없다. 자네 할 일이나 하고 상사와 다투질 않도록 하게. 한참 각박한 세상이 돼놓아서 자네가 모함이나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고 했다.

그리고는 이영이 몰래 일러 그 사실을 알린모양으로 얼마 후 계남의 상사가 그 위의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당한 모양이었다.

계남의 상사 오준(吳俊)은 그 일로 해서 계남에게 원한을 품었다. 계남이 고자질을 일삼는 비겁한 놈이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부하들이 계남을 보기만 하면 슬슬 피하는 눈치를 보였다. 심지어는 『출생을 속일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돌게 되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8-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욱회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66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6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어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6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2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8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8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00	2501 Warden Ave.	298-9031